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A Plan to Revitalize System of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r

2019. 8.

황규환 | 주문배 |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황규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주문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황규환 연구총괄, 제1장~제4장, 제5장 제1절~제2절 일부

연구진

주문배 제5장 제1절
장홍석 제3장, 제5장 제2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권중 수산물품질관리사 협회 부회장
양호섭 해양수산부 사무관
성명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목차

❖ 요약 · i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및 내용	3
2. 연구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1. 선행연구 검토	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 2 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체계 및 유사 자격 분석 · 13

제1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체계	13
1. 자격의 의의	13
2. 우리나라의 자격체계	15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체계	16
제2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유사 자격 분석	18
1. 우리나라 인기자격증 현황	18
2. 수산 분야 인기자격증 현황	21
3.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및 한계	22

제 3 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및 한계 · 31

제1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31
1.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목적 및 추진체계	31
2.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33
제2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사례	35
1.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	35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채용 활성화 사례	37
제3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한계	39
1. 자격증 도입 측면	39
2. 인센티브의 실효성 측면	39
3. 제도 추진 측면	40
4. 수산분야 특수성 측면	41

제 4 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 인식도 조사 · 43

제1절 인식도 조사 개요	43
제2절 인식도 조사 결과	44
1. 구직자(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44
2. 구직자(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55
3.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	65
제3절 시사점	73

제 5 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 77

제1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당위성	77
1. 먹거리 위생·안전을 위한 노력	77
2.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가	79
3. 수산물 소비에서의 비가격적 요인(‘신선도’) 중요도 증가	81
4. 수산물 품질관리의 한계	82

5. 수산분야 인력(Humanware)문제의 개선	84
6.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85
제2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87
1. 산지위판장 품질관리를 위한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87
2. 산지위판장 유통효율화를 위한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89
3. 수산시장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93
4.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94
5. 수산물품질관리사 법·제도 개선방안	96

❖

참고문헌 · 99

❖

부록 · 103

표 목차

❖	
〈표 1-1〉 수산물품질관리사 직무분석	6
〈표 1-2〉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 출제영역	7
〈표 1-3〉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10
〈표 2-1〉 우리나라 자격체계 현황	16
〈표 2-2〉 국가전문자격 시행 현황	17
〈표 2-3〉 우리나라 인기자격증 현황(국가자격 기준)	18
〈표 2-4〉 우리나라 인기자격증별 취득 이점	20
〈표 2-5〉 수산 분야 인기자격증 현황	22
〈표 2-6〉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관련 기관별 역할	23
〈표 2-7〉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절차	24
〈표 2-8〉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25
〈표 2-9〉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현황	26
〈표 2-10〉 농산물품질관리사 직업별 구분	27
〈표 2-11〉 농산물품질관리사 지역 구분	28
〈표 2-12〉 농산물품질관리사 성별 구분	29
〈표 2-13〉 농산물품질관리사 연령별 구분	29
〈표 3-1〉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응시 및 합격 현황	33
〈표 3-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지역별 분포	34
〈표 3-3〉 전라남도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사업의 추진체계	36
〈표 3-4〉 전라남도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36
〈표 3-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사례	37
〈표 4-1〉 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인식도 조사 개요	44
〈표 4-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응답자 특성	46
〈표 4-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응답자 특성	55

〈표 4-4〉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 응답자 특성	65
〈표 5-1〉 PERI(Perceived Food Risk Index)의 먹거리 위해요인과 위험유형 ·	78
〈표 5-2〉 수산물품질관리사 이해관계자 대상 임금수준 조사 결과	96

그림 목차

◆	
〈그림 3-1〉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연령별 분포	34
〈그림 4-1〉 자격증 관심도(자격취득자)	47
〈그림 4-2〉 자격증 실용성(자격취득자)	48
〈그림 4-3〉 자격증 경쟁력(자격취득자)	49
〈그림 4-4〉 자격증 소지자 고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자격취득자)	49
〈그림 4-5〉 자격증 관련 교육(자격취득자)	50
〈그림 4-6〉 희망하는 임금수준 및 근로수준(자격취득자)	51
〈그림 4-7〉 희망하는 기업 규모(자격취득자)	51
〈그림 4-8〉 수산분야로의 취업 의향(자격취득자)	52
〈그림 4-9〉 수산분야에서의 희망하는 일자리(자격취득자)	52
〈그림 4-10〉 본 업무 이외의 타 업무 수행 가능여부(자격취득자)	52
〈그림 4-11〉 수산분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자격취득자)	53
〈그림 4-12〉 주로 이용하는 일자리 탐색 방법(자격취득자)	54
〈그림 4-13〉 주로 이용하는 일자리 탐색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자격취득자)	54
〈그림 4-14〉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홈페이지 개설시 이용여부(자격취득자) ·	54
〈그림 4-15〉 자격증 관심도(자격취득 예정자)	57
〈그림 4-16〉 자격증 실용성(자격취득 예정자)	57
〈그림 4-17〉 자격증 경쟁력(자격취득 예정자)	58
〈그림 4-18〉 자격증 소지자 고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자격취득 예정자) ···	59
〈그림 4-19〉 자격증 관련 교육(자격취득 예정자)	60
〈그림 4-20〉 희망하는 임금수준 및 근로수준(자격취득 예정자)	61
〈그림 4-21〉 희망하는 기업규모(자격취득 예정자)	61
〈그림 4-22〉 수산분야로의 취업 의향(자격취득 예정자)	61
〈그림 4-23〉 수산분야에서의 희망하는 일자리(자격취득 예정자)	62

<그림 4-24> 본 업무 이외의 타 업무 수행 가능여부(자격취득 예정자)	62
<그림 4-25> 수산분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자격취득 예정자)	63
<그림 4-26> 주로 이용하는 일자리 탐색 방법(자격취득 예정자)	64
<그림 4-27> 주로 이용하는 일자리 탐색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자격취득 예정자) 64	
<그림 4-28>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홈페이지 개설시 이용여부(자격취득 예정자)	64
<그림 4-29> 자격증 관심도(구인자)	66
<그림 4-30> 자격증 실용성(구인자)	67
<그림 4-31> 자격증 경쟁력(구인자)	68
<그림 4-32> 자격증 소지자 고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구인자)	68
<그림 4-33> 자격증 관련 교육(구인자)	69
<그림 4-34> 회사 내 임금수준 및 근로수준(구인자)	70
<그림 4-35> 본 업무 이외의 타 업무 지시 의향(구인자)	70
<그림 4-36> 타 업무를 지시하는 이유(구인자)	71
<그림 4-37> 구직자가 수산분야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구인자)	71
<그림 4-38>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고용을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구인자) ..	72
<그림 4-39> 주로 이용하는 인력 채용 방법(구인자)	72
<그림 4-40> 선택하신 인력 채용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구인자)	73
<그림 4-41>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홈페이지 개설시 이용여부(구인자)	73
<그림 5-1> ‘수산물 품질’ 관련 Keyword 분석	82
<그림 5-2> 산지위판장 위생여건 혁신 사업추진 과정	88
<그림 5-3> 환경 친화적 어상자 및 물류시스템	90

요 약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 문제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먹거리를 배경으로 한 식중독 사고는 2002년 78건에서 2018년 36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고 유형도 다양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 강화’ 정책을 기반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은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장비 지원이나 시설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 인력(Humanware)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업 현장에 안정적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정부에서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 ‘유통 효율화’, ‘안전성 관리’를 위해 2015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389명(최종합격률 3.4%)으로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자 중 실제 취업자 수는 11명(2.9%)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효용가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의 채용 가점의

경우 채용방식이 달라 인센티브가 무의미하고, 승진 시 부여되는 가점도 이미 타 자격증으로 채워지는 등 실질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들이 효과가 미미했다. 즉, 수산물 위생·안전 전담인력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채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다.

우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구인·구직자 간의 불일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수산 관련 기업·협회·단체 등 구인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2019년 6월에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① 구인자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인식도가 저조했다(구인자의 33.3%만 인식).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구인자의 47%, 구직자의 59.4%가 현장 근무 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③ 구인·구직자 간 요구 임금격차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크게 나타났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산지위판장의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사업’과 ‘위판장 위생 평가 기준 마련 및 우수 위판장 선정 사업’, 수산시장의 수산물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전담인력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통 효율화 측면에서는 수산물의 물류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어상자의 도입과 수산물의 등급분류 부문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법·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분야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분야에 많이 안착될수록 품질관리 및 유통 효율화 업무수행을 통해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유통 효율화는 수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입 필요

■ 수산물, 위생·안전한 공급을 위해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

-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산물을 좋아하고, 즐겨먹는 먹거리 중 하나임
- 그러나 중국산 꽃게에서 납 검출 사건, 양젖물에 무계를 늘린 해삼과 소라 사태,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 등 수산물 먹거리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음
- 수산물은 외부 충격에 약하고 쉽게 부패하거나, 생산·유통 환경에서 직·간접적인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등의 특성으로 품질관리 및 유통의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먹거리임
- 국민적 차원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해 정부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묻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효율화를 목적으로 야심차게 도입

-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수산물 품질의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 촉진, 안전성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수산물 품질관리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동 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총괄하고,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발급 및 관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수교육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직무는 ①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② 수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관리,

③ 수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④ 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⑤ 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등임

-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음. 1차 시험은 4개 영역(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수산물유통론, 수확 후 품질관리론, 수산일반)에서, 2차 시험은 2개 영역(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에서 각각 치러짐
- 보수교육은 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단체에 채용된 수산물품질관리사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관련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됨

취업률 2.9%에 그쳐, 정책지원 미흡으로 제도 활성화에 한계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산분야 안착에 난항, 자격증 취득자는 많이 배출되나 취업자는 2.9%에 그쳐

-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시행 이후 총 389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자격취득자의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아 연령대가 높고, 거주 지역도 수산업 비중이 낮은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았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는 2015년 85명, 2016년 128명, 2017년 42명, 2018년 134명 등 총 389명이며, 최종합격률은 3.4%로 나타났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25.4%로 가장 많고, 50대가 21.9%, 40대가 18.3%, 20대 및 30대가 각각 17.2% 순으로 나타났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특별시가 22.7%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6.1%, 부산광역시가 13.7%, 인천광역시가 6.7% 순으로 나타났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취업자 수는 2015년 4명,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0명 등 총 11명으로(2.9%) 매우 저조했으며, 더욱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으로 취업한 사례는 없었음

■ 인센티브 효용가치 낮아,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미흡

- 수산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데, 대다수의 수산 업체들은 제품을 생산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 업무는 소외되어 왔음.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만든 인센티브의 실질적 효용가치도 매우 낮았음
- 그리고 동 제도가 일반적인 정책의 추진과 자격시험 시행·관리로 양분되어 있어 복잡하고, 국민적 차원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정보의 수집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더해 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생산·유통 직종에서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를 위해 지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자격증 취득자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중 98.6%가 수산분야 취업을 희망

■ 수산물품질관리사 이해관계자 대상 인식도 조사 실시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직접 대면조사를 병행하여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음¹⁾

- 인식도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구인·구직자 간의 불일치성을 조사하였음

■ 낮은 자격증 인식도, 전문역량 강화,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 등 제도 개선 필요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으로 기업의 고용안정, 기업 경쟁력 제고, 생산물(또는 업무)의 품질 향상, 소비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구인자 측면에서는 기업의 고용안정까지 기대하진 않았음
- 자격취득자들은 자격증 취득을 제안 받은 빈도가 높았던 반면, 자격취득 예정자 및 구인자들의 자격증 인식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음
- 구인자들은 회사 내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 업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 업무는 계속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은 수산분야로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은 자격증 취득이 매우 어려워, 자격증 취득 만족도 및 취득에 따른 취업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희망하는 임금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구인자 측면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어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가 나타났다음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가 수산업 현장에 안정적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음. 이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인식도 조사·분석을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방안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외 공통적으로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창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수산물 먹거리 위생·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 수산물 먹거리 안전과 수산분야 인력(Humanware)문제의 개선을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필요

- 먹거리 위생·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먹거리 안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이때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대안임
-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를 통해 날로 높아지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임
 - 수산물 소비에서 가격 요인보다 ‘신선도’, ‘맛’, ‘품질’과 같이 비가격적인 중요도가 크게 증가함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은 수산분야에 취직할 의향이 높고, 어떤 일자리든 상관없다는 응답이 높아 수산분야에 만연해 있는 일자리 기피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음

■ 품질관리 측면에서 산지위판장 및 수산시장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 산지위판장에서는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전담인력(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배치를 통해 각 산지위판장의 시설수준을 고려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함
- 정부에서는 전문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문 모니터링 요원(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을 배치하여, 각 산지위판장별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이를 거점형 청정 위판장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반영해야 함
- 수산시장에서는 수산물의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을 통한 시장 내 위생관리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소매 수산시장 가격 표시제’의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에 수산물품질관리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유통효율화 측면에서 어상자의 도입 및 수산물 표준규격 분류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 수산물의 물류 표준화를 위해 새로운 어상자의 효과적인 도입이 필요한데, 수산물품질관리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어상자의 사용 실태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어업인들이 새로운 어상자를 사용하도록 계도할 수 있음
- 수산물의 표준규격 분류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위해선 어종별·항목별 과학적인 기준 설정(정량적 기준), 업무 수행체계 확립(공인기관의 지정)과 수산물 품질관리사와 산지경매사의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

■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체계 개선·통합시스템 개발·홍보 방안 제시

-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지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전문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어 이의 개선이 시급함. 이에 전문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함
-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효율적인 제도 추진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경우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고용 창출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을 제시하였음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이 나타나는데, 먹거리 위험도 이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라는 큰 진통을 겪은 바 있고, 식중독 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등 먹거리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날로 심화되는 먹거리 위험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거리 안심·안전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해 왔다. 한국인들의 ‘먹거리 위험’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측면에서 ‘먹거리 위험’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렇게 국민적 차원에서 요구하는 먹거리 안심·안전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1) 김철규 외,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경제와사회, 2012. 12, pp. 12~42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²⁾

수산물은 상온에 쉽게 노출되어 부패하기 쉽고, 각종 오염원으로 부터의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농축산물에 비해 품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또한 수산물은 일시 다확성(홍수출하), 다품종·소량 생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경로를 갖는 특징으로 품질관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이에 더해 수산물을 취급하는 위판장은 노후화되었고, 가공·유통 업체들은 영세하고 종사인력의 연령도 높아 수산물의 품질관리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품질의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 촉진, 안전성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 ‘유통 효율화’,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날로 높아지는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먹거리 안전’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한다. 또한 품질이 좋은 연안어업 어획 수산물은 근해어업 수산물 보다 생산단가가 134.6% 높았고³⁾, 저온유통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산물의 품질이 제고될 경우 지불의사가 약 37%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⁴⁾ 수산물의 품질이 제고될 경우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시행 이후 수산물품질관리사 합격자 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 취업자는 2.9%로 매우 저조했다. 이에 수산물품질관

2) 한관순, 「수산물류의 선진화 과제와 발전 방안」, 물류학회지, 제28권 제4호, 2018. 8, pp. 86~87.

3) 이정삼 외, 「연안어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및 연구·개발 개선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립수산물학원, 2016. 10, pp. 21~22.

4) 이현동 외, 「수산물 저온유통의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추정」, 수산경영론집, 제40권 제2호, 2009. 9, pp. 27~43.

리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물의 어획 후 모든 수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체계와 유사 자격에 대해 살펴보고, 수산물품질관리사 추진현황과 인식도 조사를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활성화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가 자격제도란 측면에서 자격시험체계의 개선을 통해 자격취득자를 많이 양성하는 방향이다.

둘째, 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업 또는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이다.

그러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최근 제4차 시험까지 치러지

는 동안 접수인원은 약 1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최종합격자는 389명(누적합격률 3.4%)으로 저조한 합격률을 보였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최종합격자 389명 중 자격취득 이후 취업한 사람은 11명(2.9%)에 그쳤으며, 순수하게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를 기업 또는 사회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 방향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가 기업 또는 사회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구인자(기업) 측면과 구직자(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지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자격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수산물품질관리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자격체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및 수산 분야 인기자격증과 유사 제도인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조사하였다.

제3장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추진사업들을 조사·분석하여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제4장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이해관계자 대상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구인·구직자 간의 불일치성을 파악하였다.

제5장은 제1장~제4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당위성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관련 문헌조사 및 통계분석, 법·제도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를 만들기 위한 선행연구와 자격증 활성화 및 개선방안, 품질위생·안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품질과 유통에 관련된 통계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수산물품질관리사에 대한 법·제도와 추진정책도 검토하였다.

둘째, 수산물품질관리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사 협회, 수협중앙회, 수산 가공기업, 전라남도의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협회·단체 등)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직접 대면조사를 병행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해양수산부(2015)⁵⁾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검정체계를 개발하여 자격제도를 신설하였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을 위해 수산물

5)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직무 및 시험체계 분석사업」, 2015. 3

질관리사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행할 직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표 1-1〉 수산물품질관리사 직무분석

구분		주요특징
직무정의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 및 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품질을 판정하고 생산 후 품질관리 기술, 수산물의 출하시기에 대해 조언하며 수산물 표시사항 준수 및 브랜드 관리를 지도하는 일이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		적정교육 훈련기관 : 2/4년제 대학 교육훈련 기간 : 2~4년 견습 기간 : 1년 이상 신체계약 조건 : 정신이상, 신체장애자
직무분야		수산물의 등급판정,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지도,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선별·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직 무 모 형	인증·등록 및 표시관리	A-1. 품질인증관리, A-2. 유전자 변형 및 원산지 표시 관리, A-3. 안전성 관리
	원료품질관리	B-1. 어획·채취후처리 관리, B-2. 품질판정, B-3. 포장관리, B-4. 저장관리
	생산 및 가공관리	C-1. 생산관리, C-2. 가공관리, C-3. 위생관리
	유통관리	D-1. 유통 정보분석, D-2. 거래관리, D-3. 운송관리
	마케팅 관리	E-1. 목표 시장관리, E-2. 가격전략 관리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직무 및 시험체계 분석사업」, 2015. 3, pp. 65~81.

수산물품질관리사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응시 자격,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을 개발하였다. 응시자격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자격 검정 및 출제영역은 직무유형별로 설정하였다.

〈표 1-2〉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 출제영역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수산물품질관리 관련 법령					수산물유통론					수산물품질 관리 실무		수산물 등급 판정 실무
	농수산물 품질 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대책 관련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대책 관련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대책 관련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대책 관련 법령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대책 관련 법령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대책 관련 법령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대책 관련 법령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대책 관련 법령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대책 관련 법령	수산물 품질 관리 실무	수산물 품질 관리 실무	수산물 등급 판정 실무
A. 인공·등불 및 유전자 변형 및 안전 표시관리	●												
	●	●											
	●												
	●												
B. 원료 품질관리	●												
	●	●											
	●												
	●												
C. 생산 및 가공관리	●												
	●												
	●												
	●												
D. 유통관리		●											
		●											
		●											
		●											
E. 마케팅관리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직무 및 시험체계 분석사업」, 2015. 3. p. 85.

행정자치부(2002)⁶⁾는 주민의 권리의무 행사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제도로 행정사 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사 자격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과 행정사 제도 존치의 당위성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유사 전문자격제도 및 일본 행정사 제도 분석을 통해 행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2005)⁷⁾은 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해 HACCP 도입 의무화 방안 마련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HACCP제도의 의무적용을 위해 국내외 사례 및 제도를 검토하고, 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효과 검증 및 사업타당성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HACCP 의무 적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HACCP 제도 의무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김경준(2008)⁸⁾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변천과정, 자격취득 현황 및 수요 예측,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개선방향으로는 필기시험 부활, 실습 의무화, 면접시험의 선별기능 확대, 연수제도의 선별기능 확대, 일정학점 이상 취득자에 기회 부여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6)⁹⁾은 건설원가관리사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원가관리 전문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유사 자격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건설원가관리사 민간자격제도의 발전 방향으로는 첫째, 전문 역량 제고와 위상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의 등록 추진과 둘째,

6) 행정자치부, 「행정사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2002. 6

7)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05. 11

8) 김경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개선방안」, 한국청소년학회, 2008.

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원가관리사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1

중장기적으로 ‘고급 건설원가관리사’(가칭)의 도입을 검토하고, 셋째, 자격취득자의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를 위한 자격의 갱신 및 유지보수 교육 방안을 도출하였다.

김인호 외(2017)¹⁰⁾는 사회환경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및 질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청소년지도사, 체육지도사, 문화예술교육지도사, 평생교육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유사 자격 분석과 일본의 CONE, NEAL, Sharing Nature 지도사, 미국의 NAI 해설사, Park Ranger, 캐나다의 IGA 해설사 등 국외 유사 제도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각종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도입 연구 이외에 각종 자격제도의 활성화 연구를 살펴보면, 활성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자격제도별 응시자격 및 시험체계의 개선, 자격 취득 전·후의 교육체계 개선 등 운영방안의 개선이다. 둘째, 민간자격제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방안으로 현재 수준보다 높은 단계의 자격증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선제적으로 자격증 승격을 위한 당위성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특정업무 또는 사업을 이행할 시 자격취득자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둘째의 선제조건에 사회·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0) 김인호 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한국환경교육학회, 2017. 11

본 연구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격제도의 활성화란 자격취득자의 사회 또는 업계에서의 보다 많은 고용 창출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구인·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¹¹⁾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표 1-3〉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행정사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 연구자(년도): 행정자치부(2002) • 연구목적: 행정사자격제도의 전문자격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문헌조사	• 행정사 자격제도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공인 전문자격제도 분석 • 일본의 행정사제도 운영실태 조사 • 행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
	2 • 과제명: 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2005) • 연구목적: HACCP제도 조기 정착 및 제도개선사항 마련	• 문헌조사 •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매출액 증진, 불량률·클레임 감소 등)	• 식품위생법령 개선방안연구 • 의무적응을 위한 제반 규정 검토 • HACCP 제도 효율·통일화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 HACCP 의무적응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3 • 과제명: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개선방안 • 연구자(년도): 김경준(2008) • 연구목적: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	• 문헌조사 • 전문가 설문조사	•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변화과정 분석 •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현황 및 수요 예측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자격제도 개선방안 도출(시험제도개선)

11) 일자리 미스매치란 통상적으로 구인자들이 직원 채용을 위해 요구하는 경력·학력·자격 등의 조건과, 구직자들이 입사를 위해 요구하는 복지·임금·일자리 질 등의 근로수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4 - 과제명: 수산물품질관리사 직무 및 시험체계 분석사업 - 연구자(년도): 해양수산부(2015) - 연구목적: 수산물품질관리사 직무 분석을 통한 자격 검정체계 개발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직무분석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검정체계 개발
	5 - 과제명: 건설원가관리사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6) - 연구목적: 건설원가관리사 자격 제도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전문성 유지를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문헌조사 - 자격 취득자 대상 설문 조사	- 건설 원가관리 특성과 자격제도 - 국내외 유사사례 - 건설원가관리사 활성화 방안(국가 공인화, 전문 자격화)
	6 - 과제명: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 연구자(년도): 김인호 외(2017) - 연구목적: 국내·외 유사 자격제도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활성화 방안 마련	문헌조사	- 국내외 유사 자격제도 사례분석 -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운영방안, 법적 근거 마련, 자격관리 체계화)
본 연구	- 기존 연구는 각 자격증 측면에서 자격제도의 개선 또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경쟁력과 구인 구직자간 일자리 불일치 부분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문헌조사 - 설문조사 (자격취득자, 자격 취득 예정자, 구인자 등)	- 추진현황 및 유사사례 분석 - 구인 구직자 설문조사·분석 -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제 2 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체계 및
유사 자격 분석

제1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체계

1. 자격의 의의

‘자격’이란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 속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격’의 정의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 「자격기본법」, OECD를 참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격을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¹²⁾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는 ‘자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¹³⁾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 2019.6.19.)

13) 법제처 (검색일 : 2019.6.19.)

OECD에서는 자격이라는 용어를 각국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자격에 대한 용어를 “개인이 평가과정이나 학업과정의 성공적인 이수를 통해 확인된 구체적인 표준에 맞는 지식과 기술, 역량을 습득하였다고 유관기관이 판단할 때 주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¹⁴⁾

이처럼 ‘자격’이란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라는 점에서 「자격기본법」에서의 정의가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신분이나 지위를 나누는 척도’의 개념을 포함하였고, OECD에서는 ‘특정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를 특정기관이 부여하는 자격’이란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즉, 자격이란 ‘국가나 민간에서 자격취득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특정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노병호 외(2014)의 연구에서는 자격의 기능을 자격의 활용목적에 따라 신호기제 기능, 선도기제 기능, 선별적 기능, 면허적 기능으로 구분하였다.¹⁵⁾ 먼저 신호기제 기능이란 자격취득으로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신호적 기능을 말하며, 신호적 기능의 활성화는 구인·구직의 합치 및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선도기제 기능이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기능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축적할 수 있다. 이어 선별적 기능이란 기업 또는 사회에서 인재 채용 시 활용되는 기능으로, 자격은 기업 또는 사회에서 채용하기를 원하는

14) 노병호·최수홍, 「국가기술자격법 변천에 따른 시사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 8, pp. 644~647.

15) 상계서, pp. 644~647.

인적자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면허적 기능이란 특정 업무수행에 대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으로, 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로의 기능이다. 면허적 기능은 자격소지자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거나 이를 우대함으로써 그들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2. 우리나라의 자격체계

우리나라 자격체계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과 (순수)민간자격으로 각각 분류된다. 자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시행·관리되는 자격으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등으로 분류되는 기술·기능분야와 1급, 2급, 3급 및 단일등급으로 분류되는 서비스분야로 구분된다. 국가전문자격은 각 부처별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시행·관리되는 자격이다. 이러한 국가전문자격은 의료 및 법률 등 전문서비스 분야 관련 자격으로 개별 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고 있으며 면허적 성격을 가지는 자격이다.¹⁶⁾

다음으로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¹⁷⁾ 민간자격제도의 목적은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과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효용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¹⁸⁾ 이러한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근

16) 장홍석 외,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12, p. 42.

17)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검색일 : 2019.6.17.)

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게서, p. 46.

거하여 시행·관리되는데,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민간자격과 단체, 협회 등 민간에서 부여하는 (순수)민간자격이 있다.

〈표 2-1〉 우리나라 자격체계 현황

구분		주요특징	관련법
국가 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으로 한 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 예) 정보통신기사, 한식조리기능사, 기계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국가전문자격	국가가 개별 법률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으로 각 중앙 부처에서 주관, 관리 예)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개별법령
민 간 자 격	공인민간자격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인정한 민간자격 예) 신용분석사, 한자검정, 분재관리사 등	자격기본법 (교육부 외 부처·청)
	(순수)민간 자격	민간단체가 임의로 부여하는 자격(사내자격 포함) 예) 미술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자격기본법 (교육부)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2017. 12, p. 40.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체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5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어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된다. 국가전문자격은 17개 소관부처에서 법률 제·개정에 의해 자격이 최초 만들어지며, 자격별 시행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후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부처, 처, 청, 위원회 등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211개이다.¹⁹⁾ 해양수산부는 총 14개의 국가전문자격이 관리되고 있는데,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수산물품질관리사, 고속구조정수, 구명정수,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종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수산질병관리

19) 상계서, p. 43.

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등이다.²⁰⁾ 이중 수산물품질관리사를 포함한 37개 자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관리되고 있다.

〈표 2-2〉 국가전문자격 시행 현황

순번	자격명	소관부처
1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2	검수사	해양수산부
3	검량사	
4	감정사	
5	수산물품질관리사	
6	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축산식품부
7	경매사	
8	손해평가사	
9	경비지도사	
10	행정사	행정안전부(경찰청)
11	경영지도사	행정안전부
12	기술지도사	중소벤처기업부
13	변리사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14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15	산업안전지도사	
16	산업보건지도사	
17	감정평가사	국토교통부
18	물류관리사	
19	공인중개사	
20	주택관리사보	
21	관세사	기획재정부(관세청)
22	세무사	기획재정부(국세청)
23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24	문화재수리기능자	
25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문화체육관광부

20) 상계서, p. 44.

순번	자격명	소관부처
26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27	호텔경영사	
28	호텔관리사	
29	호텔서비스사	
30	국내여행안내사	
31	관광통역안내사	
32	사회복지사 1급	보건복지부
33	청소년상담사	여성가족부
34	청소년지도사	
35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청
36	소방안전교육사	
3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부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색일 : 2019.4.15.)

제2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유사 자격 분석

1. 우리나라 인기자격증 현황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자격 중에서 최근 10년 내 접수 인원이 높은 순으로 인기 자격증을 살펴봤다.

〈표 2-3〉 우리나라 인기자격증 현황(국가자격 기준)

(단위: 천 명)

구분	2008		2010		2015		2016		2017	
	종목명	접수 인원	종목명	접수 인원	종목명	접수 인원	종목명	접수 인원	종목명	접수 인원
1	워드프로세스	488	워드프로세스	346	컴퓨터활용능력2급	383	컴퓨터활용능력2급	354	컴퓨터활용능력2급	333
2	컴퓨터활용능력2급	392	한식조리기능사	329	컴퓨터활용능력1급	305	컴퓨터활용능력1급	284	컴퓨터활용능력1급	312

구분	2008		2010		2015		2016		2017	
	종목명	접수 인원	종목명	접수 인원	종목명	접수 인원	종목명	접수 인원	종목명	접수 인원
3	한식조리 기능사	277	컴퓨터활 용능력2급	327	한식조리 기능사	244	한식조리 기능사	221	한식조리 기능사	208
4	정보처리 기사	201	컴퓨터활 용능력1급	163	워드프로 세스	202	지계차운전 기능사	173	지계차운전 기능사	173
5	컴퓨터활 용능력1급	127	정보처리 기사	133	지계차운 전기능사	161	워드 프로세스	170	워드 프로세스	163
6	미용사 (피부)	117	미용사 (피부)	138	정보처리 기사	121	정보처리 기사	120	미용사 (일반)	119
7	미용사 (일반)	89	지계차운 전기능사	100	미용사 (일반)	105	미용사 (피부)	109	정보처리 기사	103
8	지계차운 전기능사	87	미용사 (일반)	89	미용사 (피부)	99	미용사 (일반)	108	굴삭기운전 기능사	95
9	정보처리 기능사	80	양식조리 기능사	86	미용사 (네일)	95	정보처리 기능사	91	미용사 (피부)	90
10	양식조리 기능사	79	제빵 기능사	73	정보처리 기능사	80	미용사 (네일)	81	전기기사	85

자료: 국가통계포털 (검색일 : 2019.5.31.)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 2급·1급, 한식조리기능사, 지계차운전기능사, 워드프로세스, 미용사(일반), 정보처리기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피부), 전기기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격증들이 인기가 높은 원인은 자격취득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이다. 즉, 한식·양식조리기능사, 미용사, 제빵기능사, 지계차 및 굴삭기운전기능사, 전기기사 등은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증으로 인기가 높았다. 이외에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워드프로세스,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은 취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증은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거나, 대학별 학점 인정·졸업인증

요건·특별전형 요건에 포함되거나, 공기업 채용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등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우리나라 인기자격증별 취득 이점

구분	취득 이점
워드프로세서	• 1급)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가산점(0.5%) • 대학별특전(학점인정, 졸업인증요건, 수시특별전형, 실기교사 자격신청 조건 등) • 공기업특전(공무원 연금공단, 한국조폐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컴퓨터 활용 능력	• 1급)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가산점(1%) • 2급)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가산점(0.5%) • 대학별특전(학점인정, 졸업인증요건, 수시특기자/특별전형, 실기교사 자격조건 등) •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 채용 우대
정보처리기사	• 7·9급 전산직 공무원 응시요건 • 정보통신분야 7·9급 지방직 공무원 가산점(1%) •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우대 • 정보통신분야 관련 기업, 정부기관, 언론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취업가능 • 정보통신부의 별정우체국 사무장, 사무주임, 사무보조 등 사무원으로 취업가능 •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는 측량분야 수치지도제작업의 정보처리 담당자로 진출가능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통신분야 8·9급 지방직 공무원 가산점(0.5%) • 정보통신분야 관련 기업, 정부기관, 언론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취업가능 • 정보통신부의 별정우체국 사무장, 사무주임, 사무보조 등 사무원으로 취업가능 •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는 측량분야 수치지도제작업의 정보처리 담당자로 진출가능
한식/양식조리기능사	• 조리직/위생직 공무원 응시요건 •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등 창업 필수요건 • 일반음식점, 호텔 내 레스토랑, 학교, 회사,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 조리사로 취업가능 • 조리 관련학과 혹은 식품영양학과 등 대학별특전(졸업요건)
미용사	• 미용실 창업 필수요건 • 미용실, 웨딩숍, 방송국, 화장품 기업, 교육 및 연구기관 등 취업가능
제빵기능사	• 제빵 관련업체, 집단급식소 취업가능 • 제과·제빵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자는 제과기능시험에 응시가능

구분	취득 이점
지게차 운전 기능사	• 지게차 관련 업체 창업가능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 시(공업직렬의 운전 직류) 가산점(3%) •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우대 • 시·도 건설사업소, 토목·건설 관련업체,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 취업가능
굴삭기 운전 기능사	• 굴삭기 관련 업체 창업가능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 시(공업직렬의 운전 직류) 가산점(3%) •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우대 • 시·도 건설사업소, 토목·건설 관련업체,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 취업가능 •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운전분야 채용 시 우대
전기 기사	• 전기직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5%) • 전기안전관리대행자로 활동 가능,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우대 • 한국전력공사, 전기 관련 업체, 국공립 전기관련 연구소 등 취업가능

자료: 큐넷 (검색일 : 2019.7.17.)

2. 수산 분야 인기자격증 현황

수산 분야의 인기자격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수산물품질관리사, 식품가공기능사, 수산양식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수산제조기술사·기사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접수 인원은 3,383명으로 2015년 대비 46.4% 감소하였으나, 수산 분야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반면, 타 수산 분야 자격증들은 일정한 응시요건²¹⁾에 충족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1) 큐넷(<http://www.q-net.or.kr/man001.do?gSite=Q>)의 국가기술 자격제도에 따르면,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기사 응시자격은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기술사 응시자격은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설정

〈표 2-5〉 수산 분야 인기자격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종목명	접수 인원	종목명	접수 인원	종목명	접수 인원	종목명	접수 인원	종목명	접수 인원
1	식품가공 기능사	747	수산물품질관리사	6,309	수산물품질관리사	2,400	식품가공 기능사	3,016	수산물품질관리사	3,383
2	수산양식 기사	614	식품가공 기능사	1,963	식품가공 기능사	2,235	수산물품질관리사	2,749	식품가공 기능사	3,103
3	수산양식 기능사	198	수산양식 기사	1,054	수산양식 기사	1,352	수산양식 기사	1,409	수산양식 기사	1,334
4	수산양식 산업기사	138	수산양식 기능사	342	수산양식 기능사	333	수산양식 기능사	339	수산양식 기능사	116
5	수산제조 기사	115	수산양식 산업기사	119	수산양식 산업기사	167	수산양식 산업기사	171	수산양식 산업기사	147
6	수산양식 기술사	10	수산제조 기사	77	수산제조 기사	63	수산제조 기사	65	수산제조 기사	13
7	수산제조 기술사	6	수산제조 기술사	19	수산제조 기술사	21	수산제조 기술사	23	수산제조 기술사	10
8	-	-	수산양식 기술사	17	수산양식 기술사	14	수산양식 기술사	14	수산양식 기술사	10

자료: 큐넷 (검색일 : 2019.5.31.)

3.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및 한계

1)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배경 및 목적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품질관리, 브랜드개발, 거래선 확보 등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 6월부터 시행하였다.²²⁾

22) 김원일,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이해」, 월간 인삼·약초, 2005. 3, p. 8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5조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와 마케팅을 주도하는 농산물 유통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주요 직무는 농산물 등급판정, 품질관리기술 지도, 출하시기 조절·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관리 및 지도, 규격출하 지도 등이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자격증 취득 시 취직 보장”은 아니며, 또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이 법으로 배타적인 사업권한을 부여 받은 자격도 아니다.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와 관련된 직종에서는 자격증을 우대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²³⁾

2)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추진현황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 관련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이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자격시험 및 자격증 관리업무와 교육에 관련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표 2-6〉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관련 기관별 역할

기 관	담당 업무	비 고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제도 총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자격시험 실시계획 수립 및 제도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 자격취소, 자격증 (재)발급, 대장관리	업무위임 (시행령 제42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팀)	자격시험 관리업무 시험공고, 원서접수, 문제출제, 시험장 확보, 채점, 합격자 발표 등	업무위탁 (시행령 제43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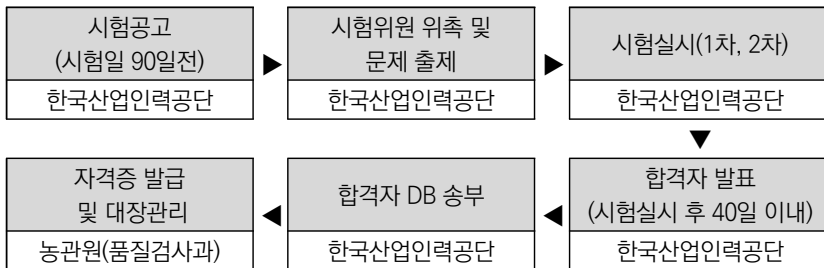
주: 2007년(제4회)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시험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방안」에 따라 2008년(제5회)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관리함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23) 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마다 실시 가능하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절차를 살펴보면, 시험일 90일 전에 시험이 공고되고, 시험실시 후 40일 이내에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후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자격증의 발급 및 대장관리 업무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이외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한다. 응시자격의 제한은 없으나,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응시할 수 없다.

〈표 2-7〉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절차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지는데, 1차 필기시험은 관련 법령, 원예작물학, 농산물유통론, 수확 후 품질관리론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출제된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실기시험이 실시되는데, 2차 실기시험은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와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영역에서 치러진다.

〈표 2-8〉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구분	시험과목	합격기준(60점)
1차 시험 (객관식)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령 - 농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령 원예작물학 농산물유통론 수확 후 품질관리론	100문항(객관식 4지선다형) 4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과락 40점)
2차 시험 (단답· 서술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30문항 20문항(단답형), 10문항(서술형) 60점 이상 합격

주: 2015년(제12회) 농산물품질관리사 2차 시험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시험범위에 추가됨. 2008년(제5회)까지는 2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었으나, 2009년(제6회)부터는 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으로 시험방법이 변경됨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를 위한 법·제도적 인센티브로는 우수관리인증(GAP)기관 인증심사원 자격, 우수관리시설 담당자 자격, 농산물검정기관의 검정인력 자격,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 CEO 또는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어 9급 농업직(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가점(3%) 부여, 농업직 공무원의 근무평정 시 가점(0.5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유관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농협중앙회에서의 인센티브가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입사시험 및 근무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정규직 공채시험의 가점(만점의 5%), 근무평정 시 가점(0.5점), 기본보수에 0.5% 증액하여 지급(수당형식은 지급 불가) 등이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정규직 공채시험에 우대(경제 부분만 해당)하고 있으며, 근무평정 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2004년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제15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2004년에 치러진 제1차 시험의 접수인원(응시인원)은 14,708명(9,701명)이었으며, 2차 시험까지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88명(합격률 0.6%)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제15차에 걸쳐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는데, 누적된 접수인원(응시인원)은 총 68,906명(46,398명)이며, 이 중 최종합격자는 3,979명(합격률 5.8%)에 달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취업에 필수적인 자격증이란 인식하에 인기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최근 제15회 접수인원은 2,801명으로 제1차 접수인원 대비 대폭 감소했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표 2-9〉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현황

(단위: 명, %)

연도	시험구분	시험일자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비율)	시험장소
2004 (제1회)	1차	'04.2.8(일)	14,708	9,701	4,020(41.4)	3개 지역
	2차	'04.4.11(일)	3,718	3,358	88(2.6)	1개 지역
2005 (제2회)	1차	'05.1.16(일)	2,093	1,247	356(28.5)	6개 지역
	2차	'05.3.20(일)	2,127	1,665	110(6.6)	5개 지역
2006 (제3회)	1차	'06.9.10(일)	2,449	1,739	883(50.8)	6개 지역
	2차	'06.11.12(일)	960	833	304(36.5)	5개 지역
2007 (제4회)	1차	'07.12.2(일)	2,534	1,799	915(50.9)	4개 지역
	2차	'08.2.24(일)	1,200	1,043	334(32.0)	3개 지역
2008 (제5회)	1차	'08.11.23(일)	3,243	2,128	769(36.1)	4개 지역
	2차	'09.2.22(일)	1,149	964	449(46.6)	3개 지역
2009 (제6회)	1차	'09.8.9(일)	5,078	3,625	248(6.84)	4개 지역
	2차	'09.10.18(일)	578	487	297(61.0)	3개 지역
2010 (제7회)	1차	'10.5.9(일)	6,905	4,856	2,415(49.7)	4개 지역
	2차	'10.7.11(일)	2,325	2,046	437(21.4)	3개 지역
2011 (제8회)	1차	'11.5.29(일)	5,497	3,729	1,578(42.3)	4개 지역
	2차	'11.7.31(일)	2,663	2,230	455(20.4)	4개 지역
2012 (제9회)	1차	'12.5.27(일)	5,194	3,674	872(23.7)	5개 지역
	2차	'12.8.19(일)	1,574	1,296	412(31.8)	4개 지역
2013 (제10회)	1차	'13.5.25(토)	5,354	3,801	1,499(39.4)	5개 지역
	2차	'13.8.17(토)	1,803	1,496	268(17.9)	5개 지역

연도	시험구분	시험일자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비율)	시험장소
2014 (제11회)	1차	'14.5.31(토)	3,836	2,610	1,149(44.0)	5개 지역
	2차	'14.8.16(토)	1,738	1,413	179(12.7)	5개 지역
2015 (제12회)	1차	'15.5.30(토)	3,172	2,159	778(36.0)	6개 지역
	2차	'15.8.15(토)	1,217	1,025	269(26.2)	6개 지역
2016 (제13회)	1차	'16.5.28(토)	3,285	2,019	693(34.3)	6개 지역
	2차	'16.8.13(토)	884	714	183(25.6)	6개 지역
2017 (제14회)	1차	'17.6.3(토)	2,757	1,788	617(34.5)	6개 지역
	2차	'17.8.12(토)	796	657	39(5.9)	6개 지역
2018 (제15회)	1차	'18.5.12(토)	2,801	1,523	460(30.2)	6개 지역
	2차	'18.8.18(토)	694	562	155(27.6)	6개 지역
계	1차	-	68,906	46,398	17,252(37.2)	
	2차	-	23,426	19,789	3,979(20.1)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 직업, 지역, 성별, 연령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농산물품질관리사 최종합격자들의 직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가 880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이 568명(27.7%), '학생'이 449명(21.9%)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0〉 농산물품질관리사 직업별 구분

(단위: 명, %)

구분	2009 (제6회)	2010 (제7회)	2011 (제8회)	2012 (제9회)	2013 (제10회)	2014 (제11회)	합계
농 협	140(47.1)	110(25.2)	130(28.6)	112(27.2)	45(12.4)	31(17.3)	568(27.7)
영농법인	4(1.4)	5(1.2)	7(1.5)	7(1.7)	4(12.9)	2(1.1)	29(1.4)
유통업체	11(3.7)	8(1.8)	10(2.2)	12(2.9)	7(11.3)	7(3.9)	55(2.7)
도매시장	-	4(0.9)	4(0.9)	1(0.2)	1(8.3)	2(1.1)	12(0.6)
학 생	35(11.8)	117(26.8)	99(21.8)	91(22.1)	67(23.3)	40(22.4)	449(21.9)
공무원	6(2.0)	8(1.8)	16(3.5)	13(3.2)	5(5)	7(3.9)	55(2.7)
기 타	101(34.0)	185(42.3)	189(41.5)	176(42.7)	139(20.2)	90(50.3)	880(43.0)
총 계	297	437	455	412	268	179	2,048

주: 2014년까지 산업인력공단(제6회~11회)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파악한 최종합격자 통계자료이며,

2015년(제12회)부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별 통계자료가 생산되지 않음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를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경기'가 338명(14.6%)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245명(10.6%), '광주'가 228명(9.8%), '전남'이 225명(9.7%), '서울'이 188명(8.1%)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1〉 농산물품질관리사 지역 구분

(단위: 명)

구분	2009 (제6회)	2010 (제7회)	2011 (제8회)	2012 (제9회)	2013 (제10회)	2014 (제11회)	2015 (제12회)	합 계
서울	20	28	23	30	25	20	42	188
부산	7	16	11	17	11	5	7	74
대구	17	20	21	18	8	8	11	103
인천	5	7	9	9	5	7	9	51
광주	35	32	46	47	27	18	23	228
대전	8	20	11	14	6	8	9	76
울산	3	4	11	2	2	1	2	25
경기	26	64	66	64	42	29	47	338
강원	9	13	12	22	13	10	9	88
충북	11	21	26	11	9	8	9	95
충남	23	32	29	29	15	8	7	143
전북	17	26	42	24	18	9	19	155
전남	34	36	54	47	28	9	17	225
경북	42	58	36	46	27	17	19	245
경남	21	42	32	25	15	15	24	174
세종	0	0	0	0	1	1	2	4
제주	19	18	25	7	10	5	8	92
기타 (미확인)	0	0	1	0	6	1	5	13
총 계	297	437	455	412	268	179	269	2,317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성별은 남자가 1,552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67.0%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765명으로 나타났다.

〈표 2-12〉 농산물품질관리사 성별 구분

(단위: 명)

구 분	2009 (제6회)	2010 (제7회)	2011 (제8회)	2012 (제9회)	2013 (제10회)	2014 (제11회)	2015 (제12회)	합 계
남 성	223	275	322	271	174	109	178	1,552
여 성	74	162	133	141	94	70	91	765
총 계	297	437	455	412	268	179	269	2,317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879명(37.9%)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600명(25.9%), '40대'가 531명(22.9%)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격취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농산물품질관리사 연령별 구분

(단위: 명)

구 분	2009 (제6회)	2010 (제7회)	2011 (제8회)	2012 (제9회)	2013 (제10회)	2014 (제11회)	2015 (제12회)	합 계
10대	0	0	2	1	0	0	1	4
20대	85	248	169	140	101	53	83	879
30대	96	116	139	101	67	32	49	600
40대	84	62	87	107	67	46	78	531
50대	31	8	51	56	28	44	46	264
60대	1	3	7	7	5	4	11	38
70대	0	0	0	0	0	0	1	1
총 계	297	437	455	412	268	179	269	2,317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

3)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의 한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들의 직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가 880명(43.0%)으로 가장 많았

고, ‘농협’이 568명(27.7%), ‘학생’이 449명(2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이 수험생과 직장인들이 입사·승진을 위한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채용 자격요건에 불과하고 해당 분야에 채용인원이 거의 없어, 자격증을 취득한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우수관리인증(GAP)기관 인증심사원, 검정인력 등은 채용인원이 많지 않아 제도 활성화의 한계로 나타났다.

제 3 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및
한계

제1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1.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목적 및 추진체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품질의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 촉진, 안전성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수교육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주요 직무는 “1.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 수산

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3. 수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 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등”이다.²⁴⁾ 이러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응시자격의 제한은 없다. 자격시험은 1차(4지선다 100문제)·2차(서술·단답형 30문항)에 걸쳐 실시되는데, 1차 시험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수산물유통론, 수확 후 품질관리론, 수산일반 등 4개 영역에서 출제된다.²⁵⁾ 1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 시험은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 등 2개 영역에서 치러진다.²⁶⁾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대상 보수교육은 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단체에 채용된 수산물품질관리사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관련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²⁷⁾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6급 이하의 해양수산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 가점 3% 부여, 수협 직원의 승진 시 자격증 가점 2점 부여,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서는 중복과목을 면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의2

2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2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2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2.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추진현황

지금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지난 2018년까지 총 4회 시행되었다. 2015년 처음 시행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4,885명이 응시하여 85명이 최종 합격(합격률 1.7%)하였다. 이후 2016년 2차 시험에서는 128명(합격률 8.2%), 2017년 3차 시험에서는 42명(합격률 1.9%), 2018년 4차 시험에서는 134명(합격률 4.9%)이 최종 합격했다. 지금까지 실시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자격시험 접수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고, 최종 합격자 389명을 배출하였다.

〈표 3-1〉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응시 및 합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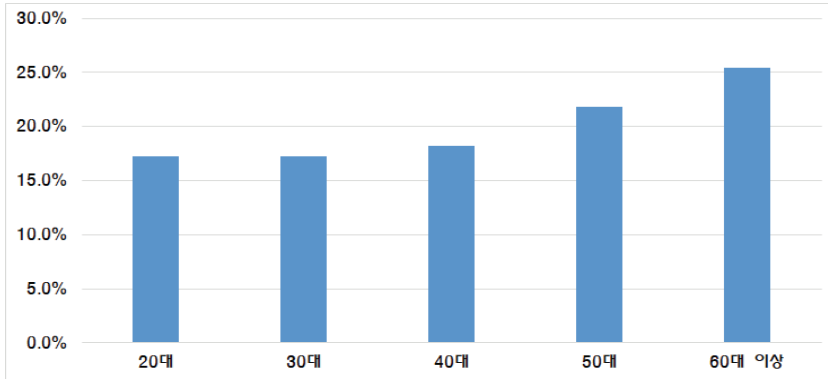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1차					2차				
	접수 인원	응시 인원	응시율	합격	합격률	접수 인원	응시 인원	응시율	합격	합격률
2015	4,885	3,523	72.1	1,671	47.4	1,424	1,265	88.8	85	6.7
2016	1,555	949	61.0	149	15.7	845	621	73.5	128	20.6
2017	2,165	1,269	58.6	599	47.2	584	475	81.3	42	8.8
2018	2,722	1,264	46.4	458	36.2	661	546	82.6	134	24.5
합계	11,327	7,005	61.8	2,877	41.1	3,514	2,907	82.7	389	13.4

자료: 큐넷 (검색일: 2019.6.19.)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총 389명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25.4%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21.9%, 40대가 18.3%, 20대 및 30대가 17.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연령별 분포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22.7%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6.1%, 부산광역시가 13.7%, 인천광역시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산 관련 산업이 많은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자격취득자는 41.0%에 그쳤다.

〈표 3-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시 도	계	구성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	255	100.0	85	128	42
1	서울	58	22.7	27	22	9
2	부산	35	13.7	10	19	6
3	대구	10	3.9	3	4	3
4	인천	17	6.7	3	11	3
5	광주	14	5.5	2	7	5
6	대전	4	1.6	1	2	1
7	울산	3	1.2	-	3	-
8	세종	1	0.4	-	1	-

구분	시 도	계	구성비(%)	2015년	2016년	2017년
9	경 기	41	16.1	17	18	6
10	강 원	7	2.7	3	4	-
11	충 북	2	0.8	1	1	-
12	충 남	6	2.4	1	5	-
13	전 북	9	3.5	2	4	3
14	전 남	14	5.5	4	7	3
15	경 북	7	2.7	3	3	1
16	경 남	20	7.8	5	14	1
17	제주도	7	2.7	3	3	1

자료: 전라남도 내부자료

제2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사례

1.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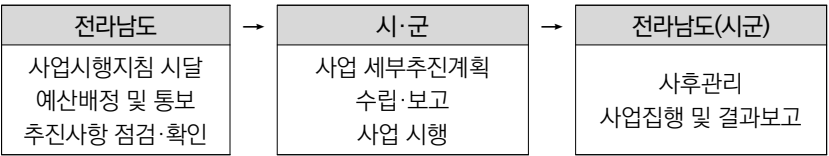
전라남도는 2017년부터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수산물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물류 효율화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채용 지원을 통해 가공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은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매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하는 것으로, 지원기간은 최장 24개월이다.

사업지원 대상자는 수산물(천일염 등) 가공·유통업체, 어업인 주식회사, 수협(지구별, 업종별), 수산물 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 자격은 2017년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만 대상이었으나, 사업실적이 저조(2017년에는 5명 채용, 2018년에는 1명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자격에 ‘수산계 고등·대학교

에서 식품가공분야 졸업자(예정자)'이거나 '수산물식품 가공업체 경력자(품질관리 분야 3년 이상)'를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 점검·확인하며, 시·군에서는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외 사후관리와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는 공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3〉 전라남도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전라남도 내부자료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0백만 원, 2018년부터 24백만 원이 투입되고 있다. 2018년까지의 지원 비율은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이었으나, 2019년부터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로 지원 비율이 일부 변경되었다.

〈표 3-4〉 전라남도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천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30,000	24,000	24,000	24,000	24,000
도 비	7,500	6,000	3,600	3,600	3,600
용 자	-	-	-	-	-
시군비	7,500	6,000	8,400	8,400	8,400
자부담	15,000	12,000	12,000	12,000	12,000

자료: 전라남도 내부자료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채용 활성화 사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공고를 조사한 결과, 2017년에는 본원 및 지원 포함 17건, 2018년 및 2019년에는 각각 2건의 채용 공고가 있었다. 또한 채용 분야로는 원산지표시관리, 검사보조, 수출보조, 사무보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채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3-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사례

공고명	채용 분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여부
2019년 제3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공고	검사 보조	○
	수출보조	○
2019년 제2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공고	사무보조(원산지)	○
	사무보조(수출)	○
2018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무기계약관로자 채용공고	원산지표시관리	○
2018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무기계약관로자 채용	원산지 표시관리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원산지표시관리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검사보조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장항지원, 전주지원)	원산지 표시관리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5월 2일)	원산지 표시관리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검사보조(IUU,	○

공고명	채용 분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여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수출)	
	원산지 표시관리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4월 6일)	검사보조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4월 4일)	원산지표시관리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3월 29일)	원산지표시관리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3월 14일)	원산지표시관리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2월 24일)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1월 14일)	원산지표시관리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2월 1일)	원산지표시관리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1월 16일)	원산지표시관리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1월 2일)	검사보조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6.12.13.)	원산지표시관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2016.12.13.)	원산지표시관리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6.12.12.)	원산지표시관리	○
2017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6.12.9.)	검사보조	○
2017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2016.11.29.)	검사보조	○
	원산지표시관리	○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색일 : 2019.7.23.)

제3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한계

1. 자격증 도입 측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은 응시 자격의 완화(응시자격 없음)라는 측면과 직업 활동영역의 불명확성 측면을 들 수 있다. 먼저 응시자격의 완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수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직종에 주로 종사하며, 주요 직무는 지도 및 관리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을 위해 2·4년제 대학에서의 교육과 1년 이상의 견습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격증 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격은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교육 이수도 설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자격취득자들의 전문 역량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직업 활동영역의 불명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직업 활동영역을 ‘수협 또는 수산물 판매/가공 법인’과 ‘농수산물유통센터 또는 관련 시장’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 활동영역의 설정은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판별하기는 매우 모호하다. 이러한 문제는 구인·구직자 측면에서 모두 나타났다.

2. 인센티브의 실효성 측면

수산물품질관리사 취업자는 2.9%로 매우 저조했다. 이러한 원인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대상 인센티브의 실질적 효용 가치

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도입 이후 수산물품질관리사 합격 현황을 살펴보면, ('15) 85명, ('16) 128명, ('17) 42명, ('18) 134명으로 총 합격자 수는 389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15) 4명, ('16) 5명, ('17) 2명, ('18) 0명으로 총 11명(2.9%)에 그쳤다. 이에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특별채용 방식의 채용으로 현재 적용되는 '공개채용 시 가점 3% 부여'에서 제외되어 인센티브의 효력이 없었다. 또한 수협 직원의 승진 시 적용되는 가점 2점 부여는 매우 높은 점수(변호사사무사 등이 2점에 해당)이나, 이미 타 자격증으로 승진요건 점수(4점)가 충족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산물 위생·안전 전담인력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채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3. 제도 추진 측면

정부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관은 해양수산부, 시험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발급 및 관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수교육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도 관련 일반적인 정책의 추진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성격이 자격증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제도의 추진과 자격시험시행·관리로 양분되어 있어 복잡하다.

또한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로 자격시험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제도의 도입 이후 학원가를 중심으로 취업에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과대광고 되었다. 이로 인해 각종 민원의 발생과 자격취득자들이 수산분야로의 취업이 어려운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실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389명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 경기 등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한계가 전라남도 사업에서 여실히 나타났는데, 2017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사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였다.²⁸⁾

4. 수산분야 특수성 측면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수산분야의 특수성은 구직자들의 수산분야 일자리 기피문제와 수산업체들의 영세성이 있다. 수산업의 고용여건을 살펴보면, 구직자들이 수산분야 일자리를 기피하는 문제가 만연한 상태다. 수산분야 일자리 기피문제는 수산업 일자리가 가진 특수성에 기인하는데, 수산물을 직접 만져야 하는 작업환경과 타 산업대비 낮은 임금 및 복지 수준, 높은 노동 강도, 출퇴근이 힘든 근무지의 위치 및 근무환경의 열악함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전라남도 담당 공무원 면담조사 결과 실제 채용가능 한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수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다. 수산업체들의 연간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10억 원 미만의 도매업체가 70.7%, 1억 원 미만의 소매업체가 67.1%를 차지한다.²⁹⁾ 이로 인해 대부분의 수산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기에 급급하고,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주요 업무인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 업무는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수산분야 특수성으로 인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이 수산분야에 안착하기가 쉽지 않고, 이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에 악영향으로 작용했다.

29) 해양수산부,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 2018. 5, p. 4.

제 4 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
인식도 조사

제1절 인식도 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활성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관련 인식도 측면과 구인·구직 여건 측면으로 구분하여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의 전반적인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해 자격증 관심도, 자격증 실용성, 자격증 경쟁력, 자격취득자 고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자격증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란 결국 자격취득자가 수산업 현장에의 안정적인 안착이라는 점에서 현재 수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안고 있는 구직자와 고용주 간의 불일치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구인·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부분을 조사하여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식도 조사대상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와 자격증 취득예정자,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로 설정하였으며, 조사는 2019년 6월 중에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직접 대면조사로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표 4-1〉 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인식도 조사 개요

구분	취득 이점
조사목적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구인·구직자 간의 불일치성 파악
조사 대상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수산 관련 기업·협회·단체 등
조사 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직접 대면조사 병행
조사내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관련 인식도 측면(자격증의 관심도, 자격증의 실용성, 자격증의 경쟁력, 자격증의 기업 경쟁력 강화, 자격증의 교육 부문) - 구인·구직 여건 측면(원하는 임금 및 근로 수준, 취업 방향, 구인·구직 시 선호 방법 및 이유)

제2절 인식도 조사 결과

1. 구직자(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1) 응답자 특성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1명이 인식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71명에 대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전체 응답자의 84.5%, 여자가 15.5%로 남성이 월등히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4%, 60대 이상이 36.6%로 나타나는 등 50대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76.0%를 차지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전체 응답자의 67.6%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수산 분야 전공자는 9.9%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는 수산분야 전공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분은 임금근로자(취업자)가 전체 응답자의 49.3%로 가장 많았고, 미취업자 15.5%, 재취업준비자 14.1%,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9.9% 등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47.9%, 10년 이상이 39.4% 등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자격증 취득연도는 2015년을 제외하고 30%대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자격증 취득목적은 취직이 전체 응답자의 63.4%로 가장 많았고, 이직(또는 전직)이 14.1%, 자기개발이 11.3%, 직무수행 7.0% 등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시 신분은 임금근로자가 전체 응답자의 46.5%로 가장 많았고, 재취업준비자가 21.1%, 미취업자가 12.7%,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가 11.3%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타 자격증 소지자가 33.0%, 국가자격증(1개 이상) 소지자가 29.9%, 국가기술자격증(1개 이상) 소지자가 28.9%, 민간자격증(1개 이상) 소지자가 5.2% 등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이외의 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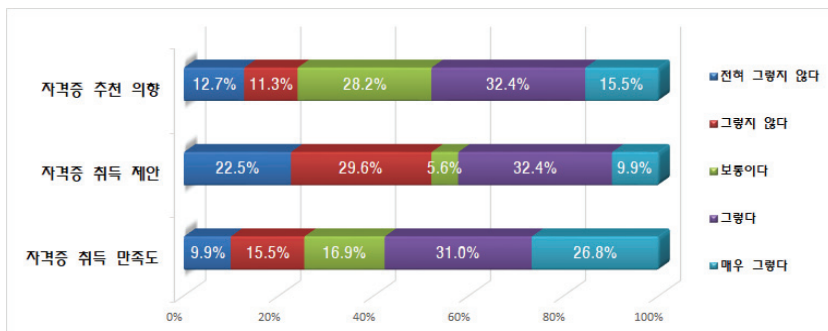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중	구분		사례수	비중
성별	남자	60	84.5	자격증 취득연도	2015년	2	2.9
	여자	11	15.5		2016년	23	33.3
연령별	20대	1	1.4		2017년	23	33.3
	30대	4	5.6		2018년	21	30.4
	40대	12	16.9	자격증 취득목적	취직	45	63.4
	50대	28	39.4		직무수행	5	7.0
	60대 이상	26	36.6		창업	2	2.8
학력별	고졸 이하	9	12.7		승진	0	0.0
	대학 재학	1	1.4		자기개발	8	11.3
	대졸	48	67.6		이직 (또는 전직)	10	14.1
	대학원졸	13	18.3		기타	1	1.4
전공	수산분야 전공	7	9.9	취득 시 신분	임금근로자	33	46.5
	비수산분야 전공	64	90.1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8	11.3
현재 신분	임금근로자	35	49.3		재취업준비자	15	21.1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7	9.9		미취업자	9	12.7
	재취업 준비자	10	14.1		학생	1	1.4
	미취업자	11	15.5		기타	5	7.0
	학생	1	1.4	타 자격증 보유현황	국가기술자격	28	28.9
	기타	7	9.9		국가자격	29	29.9
근무 경력	1년 미만	34	47.9		민간자격	5	5.2
	1~3년 미만	3	4.2		기타 자격	32	33.0
	3~5년 미만	3	4.2		없음	3	3.1
	5~10년 미만	3	4.2				
	10년 이상	28	39.4				

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관련 인식도 측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관심도, 자격증 실용성, 자격증 경쟁력, 자격증의 기업 경쟁력 강화, 자격증의 교육 부문으로 분류하여 설문하였다. 첫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취득 만족도, 타인으로부터 자격증 취득 제안 유무, 자격증 추천 의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자격증 취득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가 26.8%, ‘그렇다’가 31.0%로 전체 응답자의 57.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을 권유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52.1%로 많았고, 향후 자격증 취득을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7.9%가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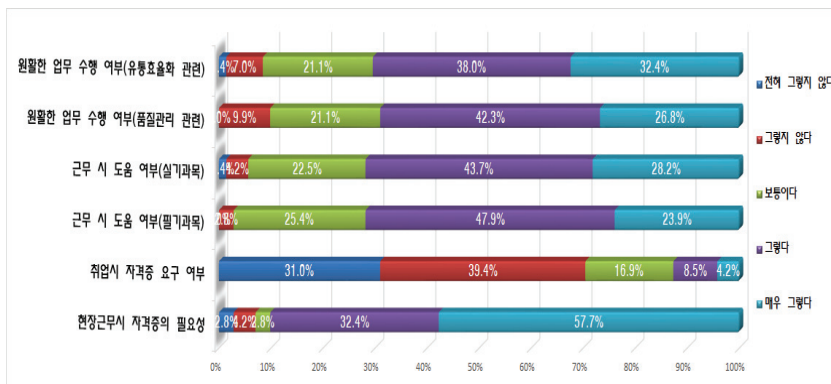
〈그림 4-1〉 자격증 관심도(자격취득자)



둘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실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근무 시 자격증의 필요성, 취업 시 자격증 요구 여부, 근무 시 도움 여부, 원활한 업무 수행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현장근무 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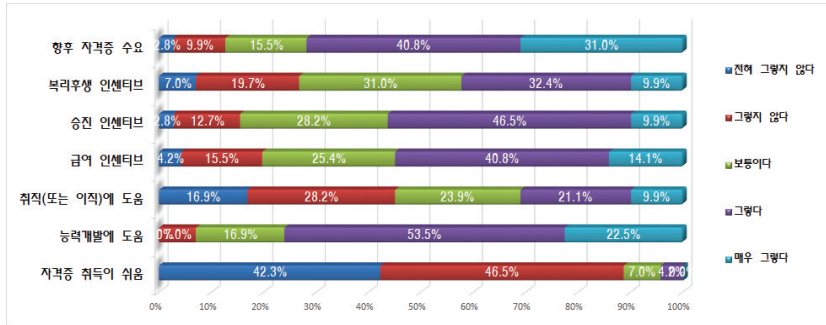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1%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취업 시 자격증 요구 여부에서는 70.4%가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시 도움 여부에서는 필기과목(71.8%) 및 실기과목(71.9%) 모두 도움이 되며, 자격취득자는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림 4-2〉 자격증 실용성(자격취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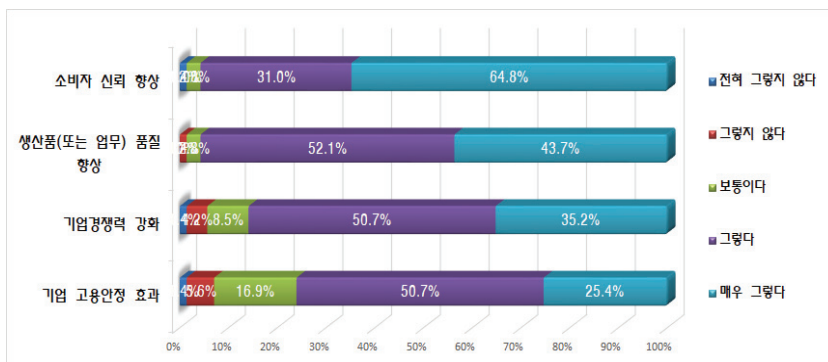
셋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수준, 능력개발에 도움 여부, 취직(또는 이직)에 도움 여부, 급여·승진·복리후생 등의 인센티브 기대 여부와 향후 자격증 수요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자격증의 취득은 어려우나(88.8%), 본인의 능력개발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76.0%) 나타났다. 그러나 자격증의 취득은 취직(또는 이직)에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45.1%)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격취득자들은 급여·승진·복리후생 등의 인센티브를 기대(급여 54.9%, 승진 56.4%, 복리후생 42.3%)하고 있었으며, 향후 자격증 수요는 많아질 것(71.8%)으로 전망했다.

〈그림 4-3〉 자격증 경쟁력(자격취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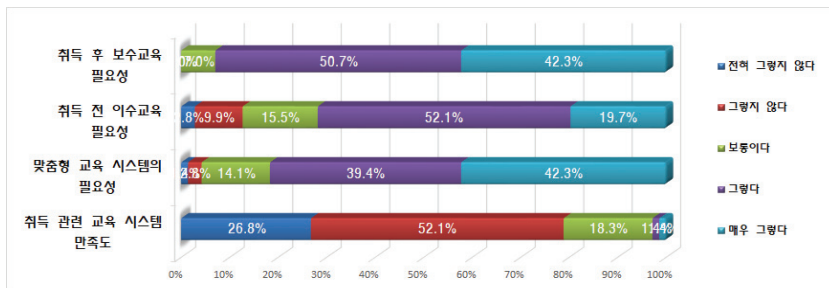
넷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고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안정, 기업경쟁력 강화, 생산물(또는 업무)의 품질 향상, 소비자 신뢰 향상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기업 고용안정 효과는 전체 응답자의 76.1%가, 기업경쟁력 강화는 전체 응답자의 85.9%가, 생산물(또는 업무) 품질 향상은 전체 응답자의 95.8%가, 소비자 신뢰 향상은 전체 응답자의 9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림 4-4〉 자격증 소지자 고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자격취득자)



다섯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시스템의 만족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 취득 전 이수교육의 필요성, 취득 후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시스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78.9%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은 전체 응답자의 81.7%가, 취득 전 이수교육의 필요성은 전체 응답자의 71.8%가, 취득 후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전체 응답자의 93.0%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림 4-5〉 자격증 관련 교육(자격취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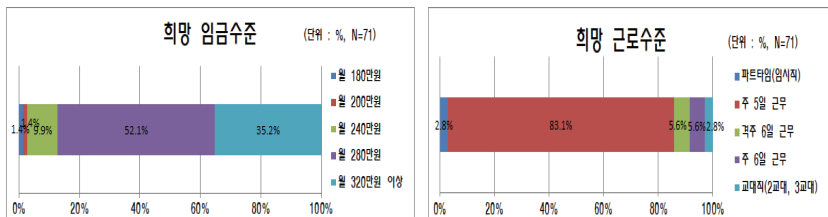


3) 구인·구직 여건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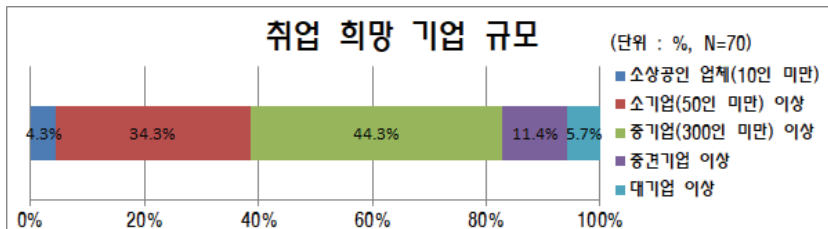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여건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희망 임금수준 및 근로수준,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 업무 이외의 타 업무 수행 가능여부, 수산분야 취업 의향 및 희망하는 일자리 분야, 취업 희망 기업 규모, 수산분야 취업 기피이유, 일자리 탐색 방법 및 선호하는 이유,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사이트 개설 시 이용여부 부문으로 분류하여 설문하였다.

첫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의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근로수준, 기업 규모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희망하는 임금수준은 ‘월 280만 원’이 52.1%, ‘월 320만 원 이상’이 35.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근로수준으로는 ‘주 5일 근무’가 전체 응답자의 83.1%로 가장 많았다. 기업 규모로는 ‘중기업(300인 미만) 이상’이 44.3%, ‘소기업(50인 미만) 이상’이 34.3%로, 응답자 대부분이 소기업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희망하는 임금수준 및 근로수준(자격취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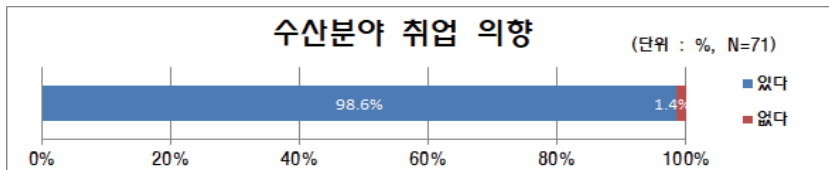
〈그림 4-7〉 희망하는 기업 규모(자격취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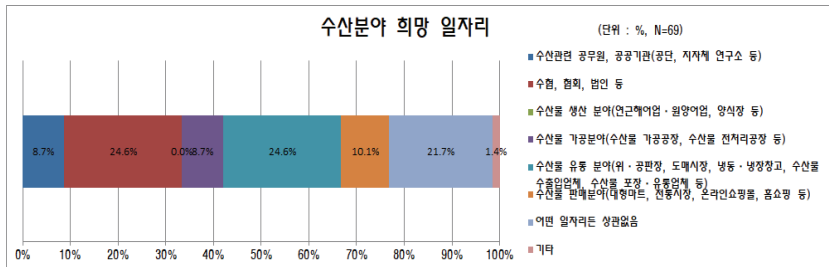
둘째, 수산분야 취업 의향 및 희망하는 일자리, 취업 후 본 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98.6%가 수산분야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일자리는 ‘수협, 협회, 법인 등’과 ‘수산물 유통 분야(위·공

판장, 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 수산물 수출입업체, 수산물 포장·유통업체 등)이 각각 24.6%로 가장 많았으며, ‘어떤 일자리든 상관없음’이란 답변도 21.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할 경우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 업무 이외의 타 업무 수행 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2.1%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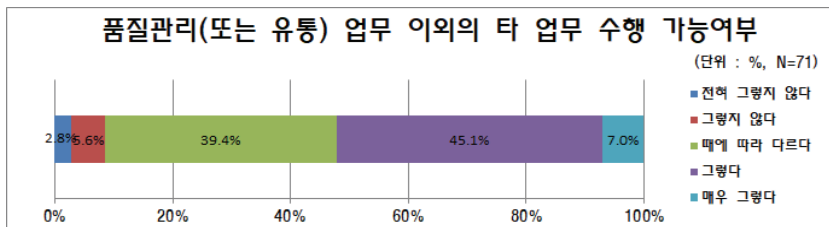
〈그림 4-8〉 수산분야로의 취업 의향(자격취득자)



〈그림 4-9〉 수산분야에서의 희망하는 일자리(자격취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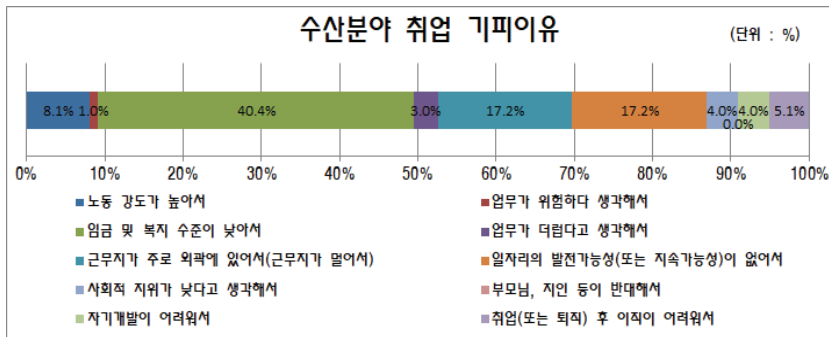


〈그림 4-10〉 본 업무 이외의 타 업무 수행 가능여부(자격취득자)



셋째, 수산분야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낮아서’가 전체 응답자의 40.4%를 차지했으며, ‘근무지가 주로 외곽에 있어서(근무지가 멀어서)’란 응답과 ‘일자리의 발전 가능성(또는 지속가능성)이 없어서’란 응답이 각각 17.2%, ‘노동 강도가 높아서’란 응답이 8.1%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100.0%가 수산분야 기피 원인이 해결될 경우 수산분야로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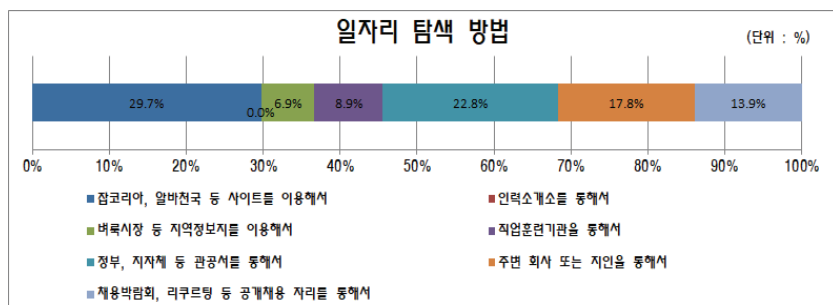
〈그림 4-11〉 수산분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자격취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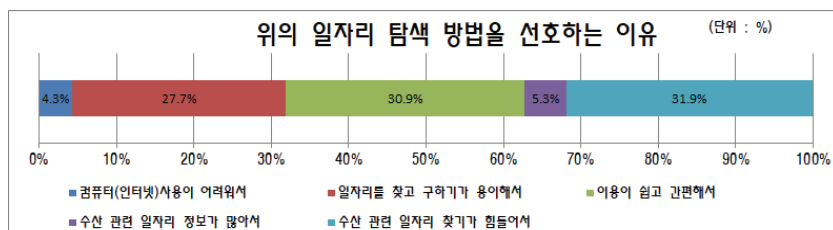
넷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경로(사이트)와 선호하는 이유,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홈페이지 개설 시 이용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주로 이용하는 일자리 탐색 방법으로는 ‘잡코리아, 알바천국 등 사이트를 이용해서’란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 지자체 등 관공서를 통해서’가 22.8%, ‘주변 회사 또는 지인을 통해서’가 17.8%, ‘채용박람회, 리쿠르팅 등 공개채용 자리를 통해서’가 13.9%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직 경로는 선호하는 이유는 ‘수산 관련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서’란 응답이 31.9%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이 쉽고 간편해서’가 30.9%, ‘일자리를 찾고 구하

기가 용이해서'가 27.7%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홈페이지 개설 시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3.0%가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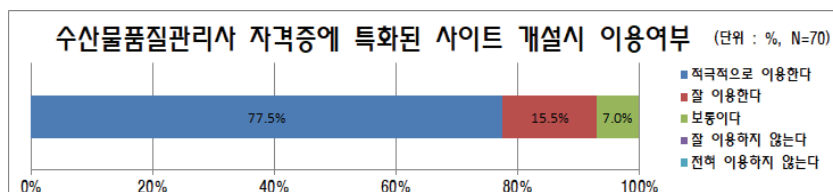
〈그림 4-12〉 주로 이용하는 일자리 탐색 방법(자격취득자)



〈그림 4-13〉 주로 이용하는 일자리 탐색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자격취득자)



〈그림 4-14〉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홈페이지 개설시 이용여부(자격취득자)



2. 구직자(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1) 응답자 특성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6명이 인식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4-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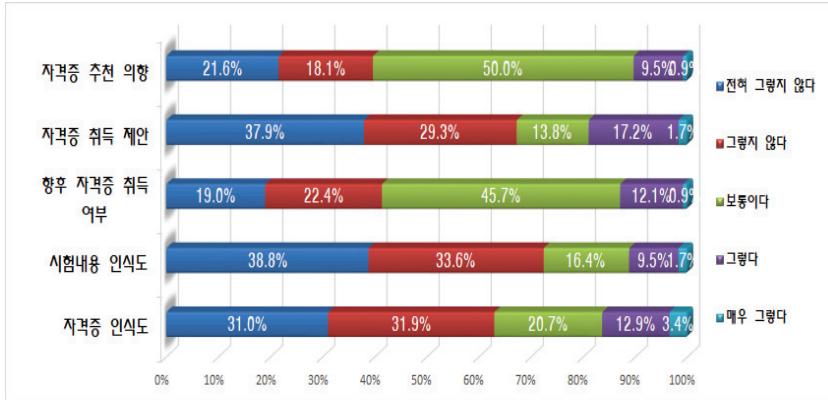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중	구분		사례수	비중
성별	남자	48	41.4	현재 신분	임금근로자	26	22.4
	여자	68	58.6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2	1.7
연령별	20대	97	83.6		재취업준비자	3	2.6
	30대	16	13.8		미취업자	13	11.2
	40대	2	1.7		학생	72	62.1
	50대	1	0.9		기타	0	0.0
	60대 이상	0	0.0	자격증 취득목적	취직	72	62.1
					직무수행	16	13.8
학력별	고졸 이하	0	0.0		창업	0	0.0
	대학 재학	65	56.0		승진	2	1.7
	대졸	24	20.7		자기개발	19	16.4
	대학원졸	27	23.3		이직(또는 전직)	6	5.2
전공	수산분야 전공	49	42.4	타 자격증 보유현황	기타	1	0.9
	비수산분야 전공	67	57.8		국가기술자격	25	21.2
					국가자격	6	5.1
					민간자격	4	3.4
					기타 자격	35	29.7
					없음	48	40.7

116명에 대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녀 성비는 고르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응답자의 83.6%를 차지했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이 56.0%로 가장 많았다. 전공으로는 수산분야 전공자가 42.4%, 비수산분야 전공자가 57.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 신분은 학생이 62.1%, 임금근로자(취업자)가 22.4%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목적은 취직이 전체 응답자의 62.1%로 가장 많았고, 타 자격증 보유여부는 자격증 없음이 40.7%로 가장 많았다.

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관련 인식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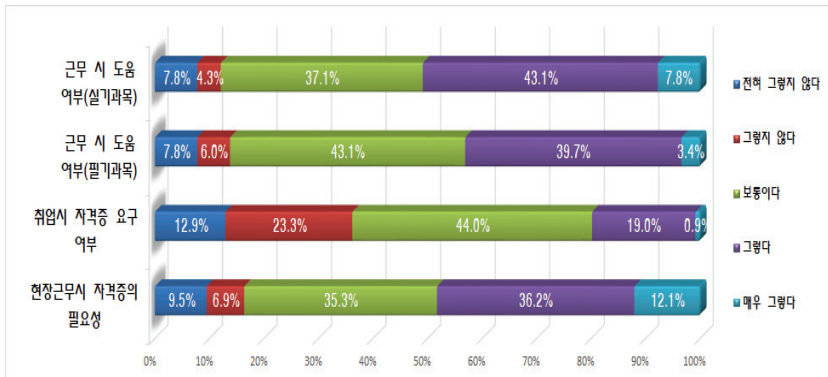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관심도, 자격증 실용성, 자격증 경쟁력, 자격증의 기업 경쟁력 강화, 자격증의 교육 부문으로 분류하여 설문하였다. 첫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및 시험내용 인식도, 향후 자격증 취득 여부, 타인으로부터 자격증 취득 제안 유무, 자격증 추천 의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자격증 인식도는 전체 응답자의 62.9%가, 시험내용은 전체 응답자의 72.4%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권유받은 적도 18.9%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격증을 취득할 의사도 13.0%로 매우 저조했으며, 자격증을 추천할 의향도 10.4%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5〉 자격증 관심도(자격취득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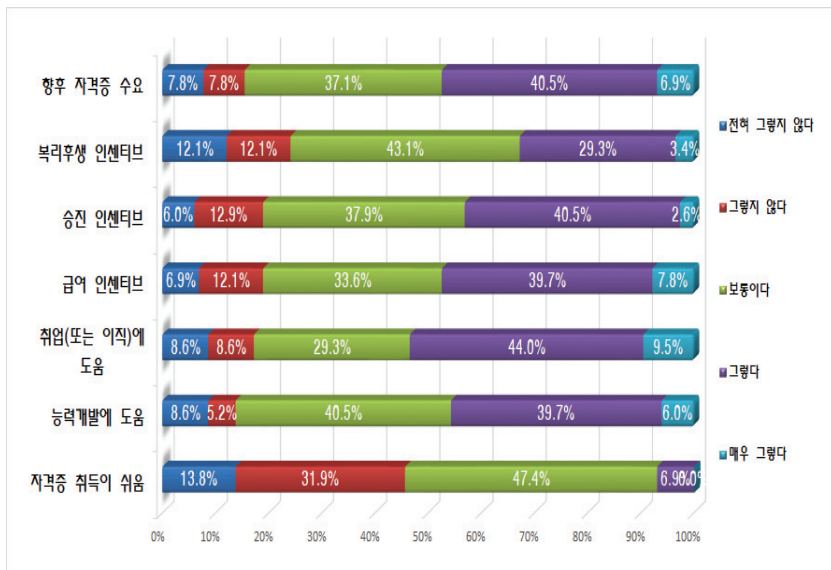
둘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실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의 필요성, 취업 시 자격증 요구 여부, 근무 시 도움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현장근무 시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8.3%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취업 시 자격증의 요구는 19.9%에 그쳤다. 이어 근무 시 도움 여부에서는 필기과목(‘그렇다’ 이상이 43.1%) 및 실기과목(‘그렇다’ 이상이 50.9%) 모두 도움 된다고 나타났다.

〈그림 4-16〉 자격증 실용성(자격취득 예정자)



셋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수준, 능력개발에 도움 여부, 취직(또는 이직)에 도움 여부, 급여·승진·복리후생 등의 인센티브 기대여부와 향후 자격증 수요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자격증의 취득은 어려우나(45.7%), 본인의 능력 개발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45.7%) 나타났다. 이어 자격증의 취득은 취직(또는 이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53.5%)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격취득 예정자들은 복리후생을 제외(‘보통이다’ 43.1%)한 급여·승진에서는 인센티브를 기대(급여 47.5%, 승진 43.1%)하고 있었으며, 향후 자격증 수요는 많아질 것(47.4%)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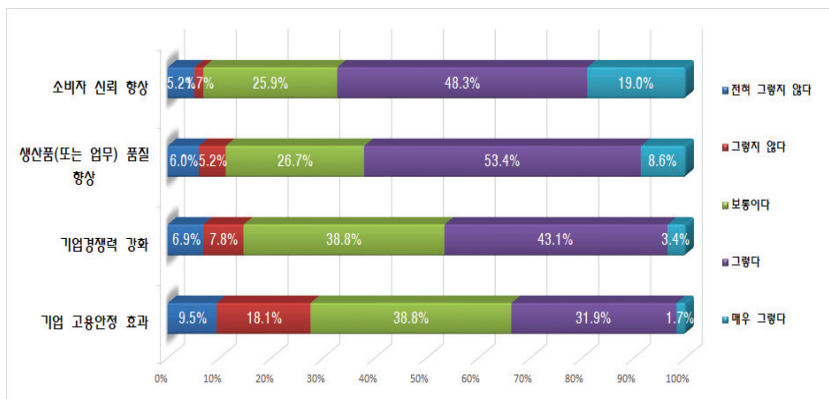
〈그림 4-17〉 자격증 경쟁력(자격취득 예정자)



넷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고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안정, 기업경쟁력 강화,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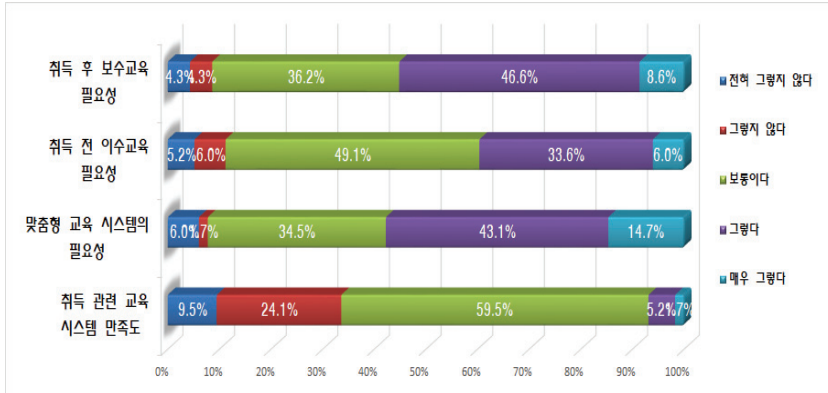
물(또는 업무)의 품질 향상, 소비자 신뢰 향상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기업 고용안정을 제외한(‘그렇다’ 이상이 33.6%에 그침), 기업경쟁력 강화 효과는 전체 응답자의 46.5%가, 생산물(또는 업무) 품질 향상은 전체 응답자의 62.0%가, 소비자 신뢰 향상은 전체 응답자의 67.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림 4-18〉 자격증 소지자 고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자격취득 예정자)



다섯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시스템의 만족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 취득 전 이수교육의 필요성, 취득 후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5%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은 전체 응답자의 57.8%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취득 전 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선 ‘그렇다’ 이상이 39.6%에 그쳐 공감도가 낮았으나, 취득 후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5.2%가 동의하였다.

〈그림 4-19〉 자격증 관련 교육(자격취득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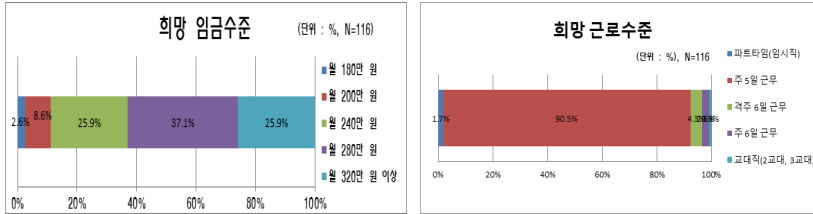


3) 구인·구직 여건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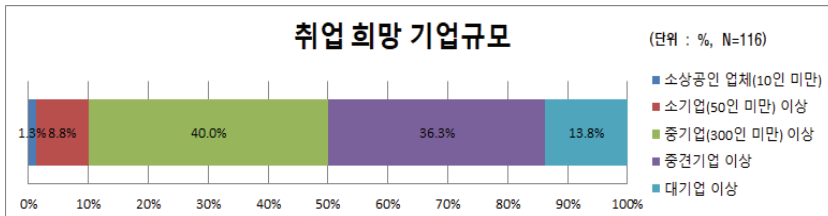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여건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희망 임금수준 및 근로수준,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 업무 이외의 타 업무 수행 가능여부, 수산분야 취업 의향 및 희망하는 일자리 분야, 취업 희망 기업 규모, 수산분야 취업 기피이유, 일자리 탐색 방법 및 선호하는 이유,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사이트 개설 시 이용여부 부문으로 분류하여 설문하였다.

첫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들의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근로수준, 기업 규모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희망하는 임금수준은 ‘월 280만 원’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월 240만 원’과 ‘월 320만 원 이상’이 각각 25.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근로수준으로는 ‘주 5일 근무’가 전체 응답자의 90.5%로 차지했다. 기업 규모로는 ‘중기업(300인 미만) 이상’이 40.0%, ‘중견기업 이상’이 36.3%, ‘대기업 이상’이 13.8%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20〉 희망하는 임금수준 및 근로수준(자격취득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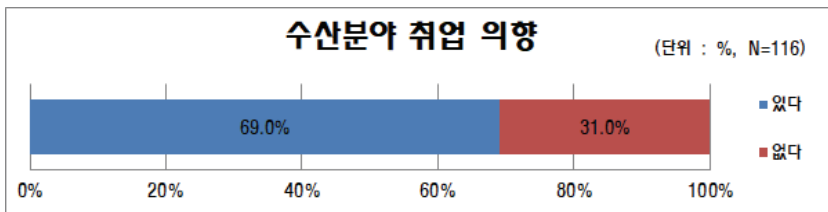


〈그림 4-21〉 희망하는 기업규모(자격취득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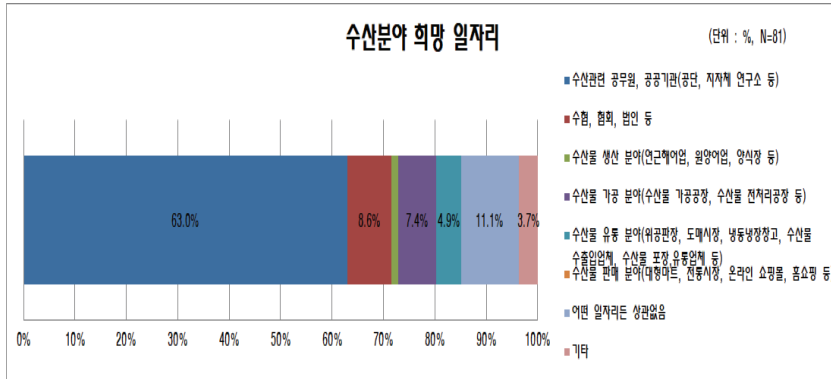


둘째, 수산분야 취업 의향 및 희망하는 일자리, 취업 후 본 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69.0%가 수산분야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의 63.0%가 ‘수산관련 공무원, 공공기관(공단, 지자체 연구소 등)’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취업할 경우 품질 관리 및 유통효율화 업무 이외의 타 업무 수행 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7%가 ‘때에 따라 다르다’란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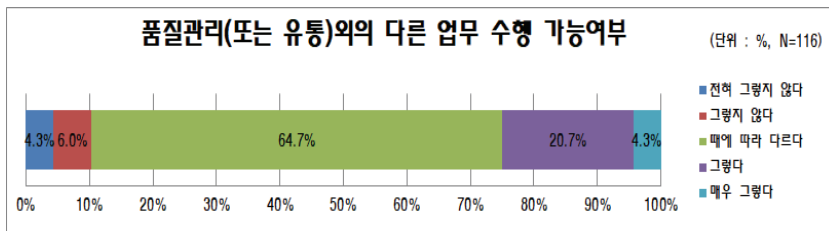
〈그림 4-22〉 수산분야로의 취업 의향(자격취득 예정자)



〈그림 4-23〉 수산분야에서의 희망하는 일자리(자격취득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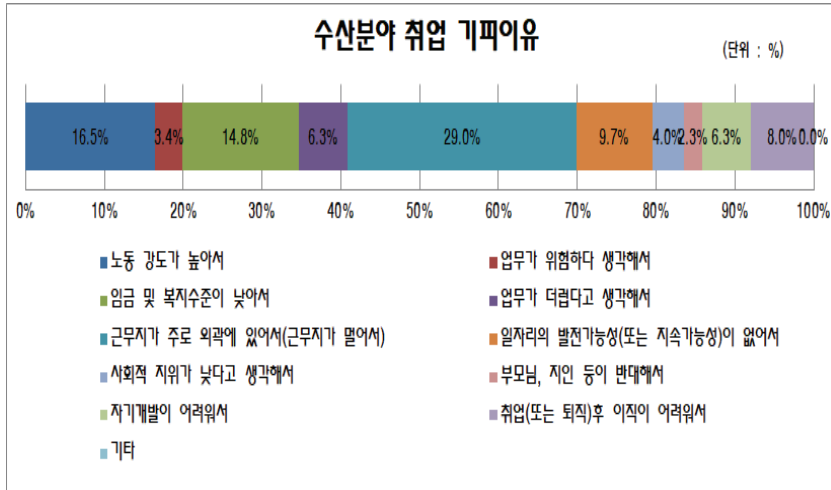


〈그림 4-24〉 본 업무 이외의 타 업무 수행 가능여부(자격취득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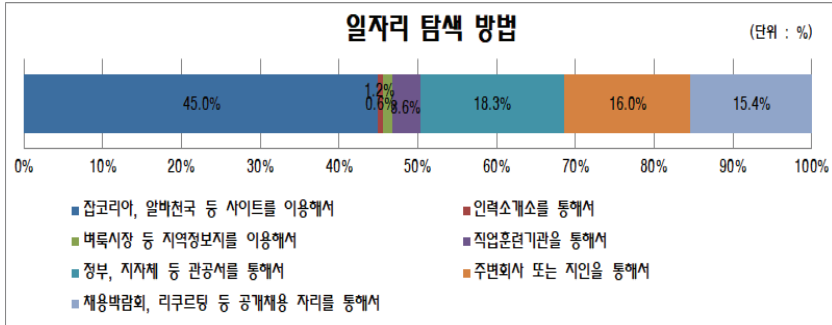
셋째, 수산분야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무지가 주로 외곽에 있어서(근무지가 멀어서)’가 전체 응답자의 29.0%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 강도가 높아서’가 16.5%, ‘임금 및 복지수준이 낮아서’가 14.8%, ‘일자리의 발전가능성(또는 지속가능성)이 없어서’가 9.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78.4%가 수산분야 기피 원인이 해결될 경우 수산분야로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5〉 수산분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자격취득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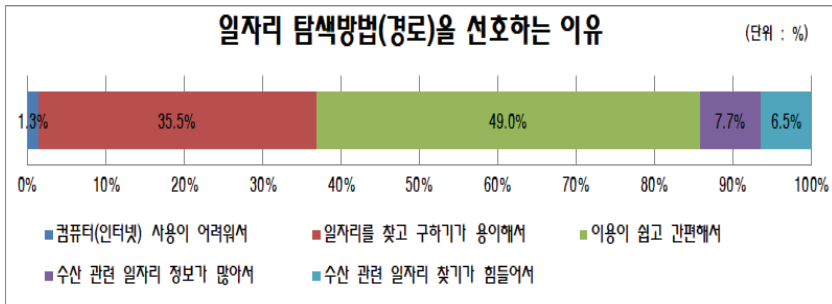


넷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경로(사이트)와 선호하는 이유,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홈페이지 개설 시 이용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주로 이용하는 일자리 탐색 방법으로는 ‘잡코리아, 알바천국 등 사이트를 이용해서’란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 지자체 등 관공서를 통해서’가 18.3%, ‘주변 회사 또는 지인을 통해서’가 16.0%, ‘채용박람회, 리쿠르팅 등 공개채용 자리를 통해서’가 1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직 경로는 선호하는 이유는 ‘이용이 쉽고 간편해서’란 응답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를 찾고 구하기가 용이해서’가 35.5%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홈페이지 개설 시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5.2%가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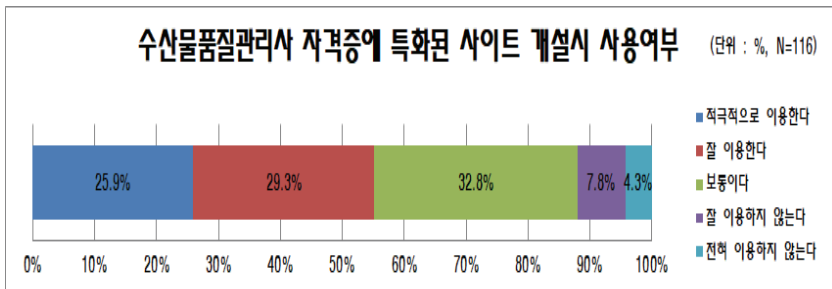
〈그림 4-26〉 주로 이용하는 일자리 탐색 방법(자격취득 예정자)



〈그림 4-27〉 주로 이용하는 일자리 탐색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자격취득 예정자)



〈그림 4-28〉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홈페이지 개설시 이용여부(자격취득 예정자)



3.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

1) 응답자 특성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개 업체가 인식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4-4〉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중	구분		사례수	비중
설립연도	2010~2019	28	51.9	수산물 생산업	어로어업	0	0.0
	2000~2009	15	27.8		양식어업	4	5.1
	1990~1999	8	14.8		어업관련 서비스업	0	0.0
	1990 이전	3	5.6		소금 채취업	1	1.3
사업장 위치	서울, 경기	0	0.0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3	29.5
	강원도	12	23.5		기타 수산물 가공업	34	43.6
	충청도	0	0.0		소금 가공업	0	0.0
	전라도	4	7.8	수산물 유통업	수산물 판매업	12	15.4
	경상도	29	56.9		수산물 운송 보관업	2	2.6
	제주도	6	11.8	수산물 가공업	어업용 기자재 제조업	0	0.0
사업장 규모	10인 미만	27	50.0		양식용 기자재 제조 및 설치업	2	2.6
	50인 미만	18	33.3		수산물 가공기계 및 포장재 제조업	0	0.0
	300인 미만	9	16.7		낙시업용 기자재 제조 및 미끼 생산업	0	0.0
종사자 비율(%)	관리자	-	25.8	수산물 생산 및 설치업			
	사무종사자	-	20.7				
	단순노무자	-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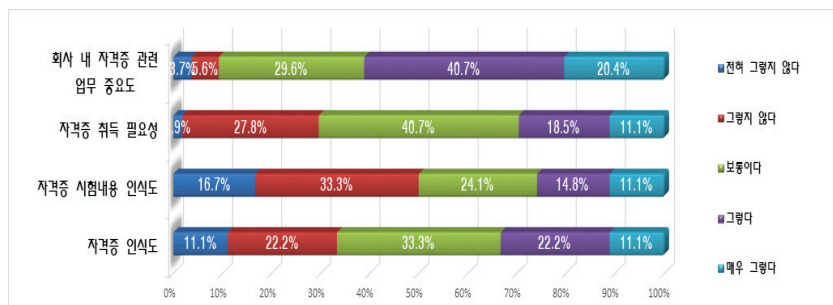
54개소에 대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설립연도는 2010년 이후 업체가 51.9%, 사업장 위치는 경상도가 56.9%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는 1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50인 미

만 업체가 33.3%, 300인 미만 업체가 16.7%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사업장별 종사자분포는 관리자가 25.8%, 사무종사자가 20.7%, 단순노무자가 53.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된 업종을 조사한 결과, 수산물 가공업 분야가 73.1%로 차지했다.

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관련 인식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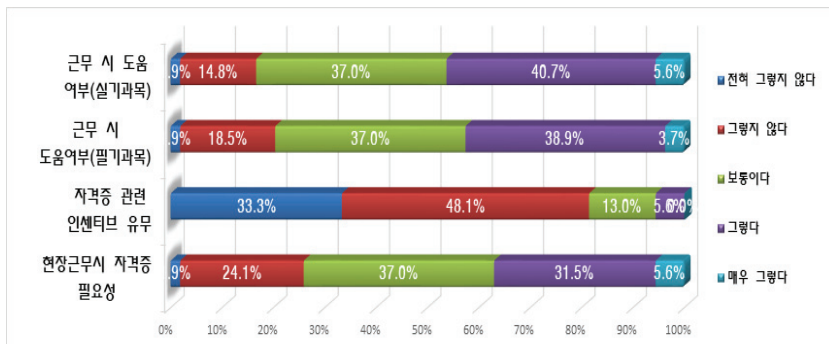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를 대상으로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관심도, 자격증 실용성, 자격증 경쟁력, 자격증의 기업 경쟁력 강화, 자격증의 교육 부문으로 분류하여 설문하였다. 첫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및 시험내용 인식도,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 회사 내 자격증 관련 업무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자격증 인식도는 ‘그렇다’가 33.3%에 그쳐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내용도 전체 응답자의 50.0%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지만(‘보통이다’가 40.7%), 회사 내 자격증 관련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1.1%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4-29〉 자격증 관심도(구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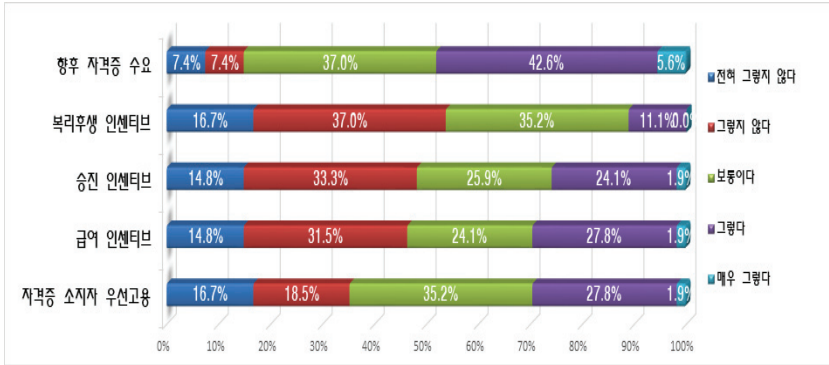
둘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실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의 필요성, 회사 내 자격증 관련 인센티브, 근무 시 도움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현장근무 시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7.1%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회사 내에서는 자격증 관련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시 도움 여부는 필기과목(‘그렇다’ 이상이 42.6%) 및 실기과목(‘그렇다’ 이상이 46.3%) 모두 도움 된다고 나타났다.

〈그림 4-30〉 자격증 실용성(구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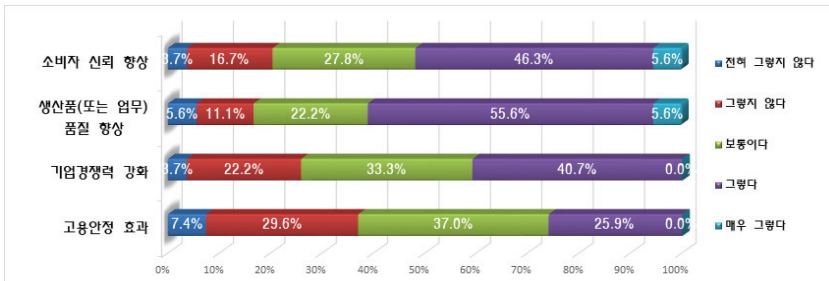
셋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 우선고용 여부, 급여·승진·복리후생 등의 인센티브 여부, 향후 자격증 수요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기업들은 채용 시 자격취득자들을 우선고용 할 의사(‘그렇지 않다’ 이상이 35.2%)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승진·복리후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의사도 없었다. 그러나 향후 자격증 수요는 전체 응답자의 48.2%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4-31〉 자격증 경쟁력(구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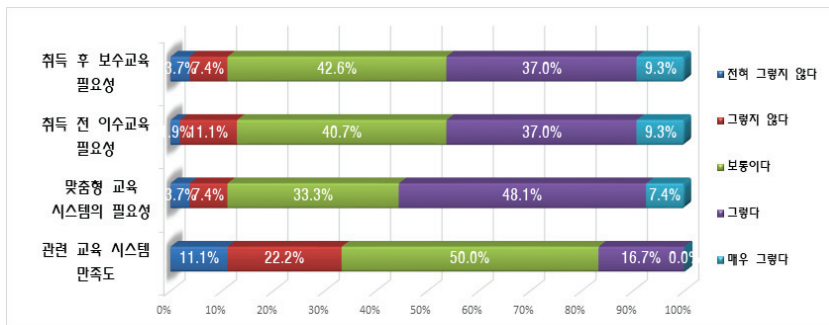
넷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고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 고용안정 효과, 기업경쟁력 강화 여부, 생산물(또는 업무)의 품질 향상 여부, 소비자 신뢰 향상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기업 고용안정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경쟁력 강화는 전체 응답자의 40.7%가, 생산물(또는 업무) 품질 향상은 전체 응답자의 61.2%가, 소비자 신뢰 향상은 전체 응답자의 51.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림 4-32〉 자격증 소지자 고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구인자)



다섯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시스템의 만족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 취득 전 이수교육의 필요성, 취득 후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시스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33.3%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은 전체 응답자의 55.5%, 취득 전 이수교육의 필요성은 전체 응답자의 46.3%, 취득 후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전체 응답자의 46.3%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림 4-33〉 자격증 관련 교육(구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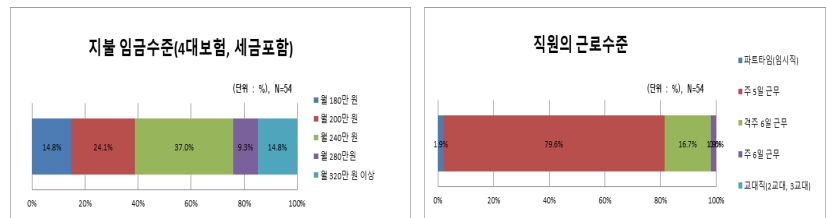


3) 구인·구직 여건 측면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여건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희망 임금수준 및 근로수준, 품질관리 및 유통 효율화 업무 이외의 타 업무 지시 의향 및 지시하는 이유, 구직자가 수산분야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일자리 탐색 방법 및 선호하는 이유,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사이트 개설 시 이용여부 부문으로 분류하여 설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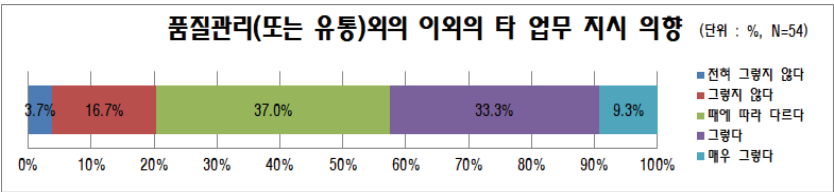
첫째, 회사 내 임금수준과 근로수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임금수준은 ‘월 240만 원’이 37.0%로 가장 많았고, ‘월 200만 원’이 24.1%로 나타났다. 근로수준은 ‘주 5일 근무’가 전체 응답자의 79.6%를 차지했다.

〈그림 4-34〉 회사 내 임금수준 및 근로수준(구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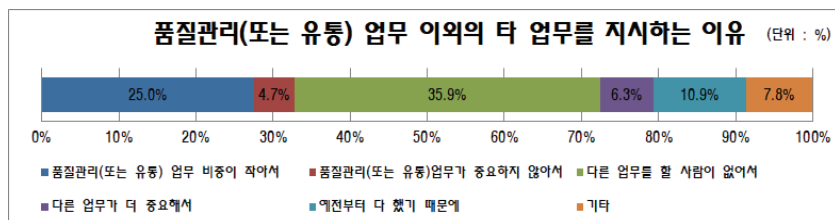


둘째, 품질관리(또는 유통) 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지시할 의향과 지시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타 업무를 지시할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2.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타 업무를 지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가 35.9%, ‘품질관리(또는 유통) 업무 비중이 작아서’가 25.0%, ‘예전부터 다 했기 때문에’가 10.9%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35〉 본 업무 이외의 타 업무 지시 의향(구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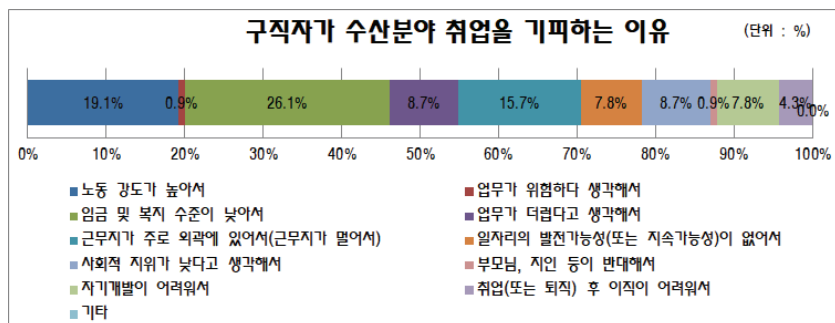


〈그림 4-36〉 타 업무를 지시하는 이유(구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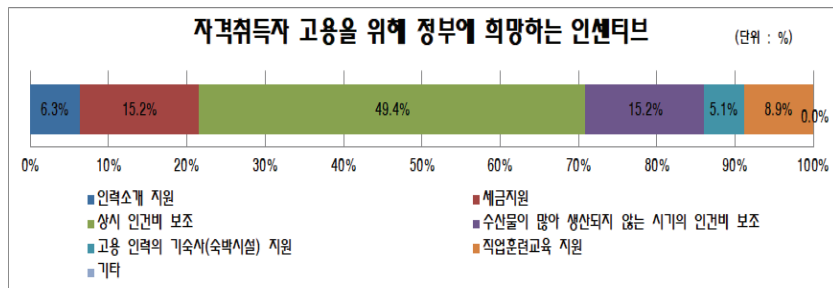
셋째, 구직자가 수산분야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낮아서’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 강도가 높아서’가 19.1%, ‘근무지가 주로 외곽에 있어서(근무지가 멀어서)’가 15.7%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37〉 구직자가 수산분야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구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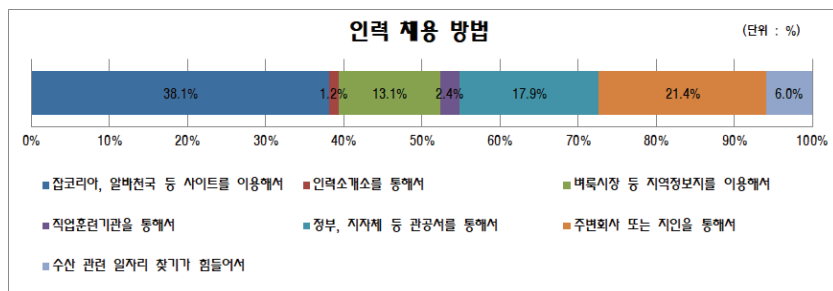
넷째, 기업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고용을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를 조사한 결과, ‘상시 인건비 보조’가 전체 응답자의 49.4%를 차지했으며, ‘세금지원’ 및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특정 시기의 인건비 보조’가 각각 15.2%, ‘직업훈련교육 지원’이 8.9%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38〉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고용을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구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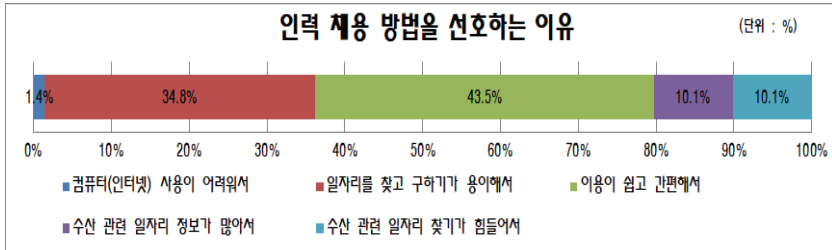


다섯째, 기업에서 구인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경로(사이트)와 선호하는 이유,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홈페이지 개설 시 이용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주로 이용하는 인력 채용 방법으로는 ‘잡코리아, 알바천국 등 사이트를 이용해서’란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회사 또는 지인을 통해서’가 21.4%, ‘정부, 지자체 등 관공서를 통해서’가 17.9%, ‘벼룩시장 등 지역정보지를 이용해서’가 13.1%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인 경로는 선호하는 이유는 ‘이용이 쉽고 간편해서’란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를 찾고 구하기가 용이해서’가 34.8%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홈페이지 개설시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3.7%가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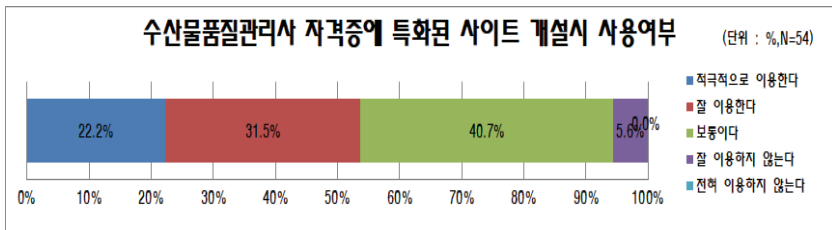
〈그림 4-39〉 주로 이용하는 인력 채용 방법(구인자)



〈그림 4-40〉 선택하신 인력 채용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구인자)



〈그림 4-41〉 수산물품질관리사에 특화된 홈페이지 개설시 이용여부(구인자)



제3절 시사점

지금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관련 인식도 측면(자격증의 관심도, 자격증의 실용성, 자격증의 경쟁력, 자격증의 기업 경쟁력 강화, 자격증의 교육 부문)과 구인·구직 여건 측면(원하는 임금 및 근로 수준, 취업 방향, 구인·구직 시 선호 방법 및 이유)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인식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도 조사 결과, 수산물품질

관리사 자격취득자의 고용으로 기업의 고용안정, 기업 경쟁력 제고, 생산물(또는 업무) 품질 향상, 소비자 신뢰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 측면에서는 자격취득자의 고용으로 기업 내 고용안정까지 기대하진 않았다. 하지만 수산업체들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현재 자격증 관련 정보는 주로 주변 지인으로부터 전파됨에 따라 자격취득 예정자 및 구인자들의 자격증 인식도는 낮은 반면, 자격취득자들의 자격증 취득을 제안받은 빈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격증 관련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들은 회사 내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 관련 업무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가 필요한 측면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품을 생산하기에 급급한 수산업체의 현 상황에서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 업무는 계속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은 수산분야 취업을 희망(응답자의 98.6%)하고 있고, 수산물품질관리사 업무 이외의 타 업무도 응답자의 52.1%가 수행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산분야 일자리를 기피하는 문제³⁰⁾를 해결하고, 수산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많은 인센티브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취득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30) 인식도 조사 결과, 수산분야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낮아서', '근무지가 주로 외곽에 있어서', '노동 강도가 높아서' 등이 높게 나타남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자격증 취득자들의 자격증 취득 만족도도 높고, 자격증 취득에 따른 취업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또한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급여·승진·복리후생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치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인자 측면에서는 회사 내 고용할 사람이 필요할 뿐, 고용인에게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요구하진 않는다. 실제 고용주 입장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 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지시하는 이유가 '다른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란 응답이 35.9%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를 위한 높은 임금과 인센티브도 당연히 없다. 이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구인·구직자 간 눈높이를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선 관련 교육 시스템과 관리체계에 대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인식도 조사 결과, 현재 수산물품질관리사 취득을 위한 교육은 매우 취약해,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격증 취득 전·후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안고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제 5 장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제1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당위성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당위성으로는, 첫째, 먹거리 위생·안전
을 위한 노력, 둘째,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가, 셋째,
수산물 소비에서의 비가격적 요인(‘신선도’) 중요도 증가, 넷째, 수산
물 품질관리의 한계, 다섯째, 수산분야 인력(Humanware)문제의 개선,
여섯째,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1. 먹거리 위생·안전을 위한 노력

1992년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는 ‘위험사회
론’³¹⁾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을 생

31) 네이버 사전(<https://terms.naver.com/>)에 따르면, 위험사회란 ‘불평등사회’의 가치 체계가 누
리던 위치는 ‘불안전사회’의 가치 체계가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평등의 유토피아는 사회변화를 향
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목표로 충만했다. 기묘하게도 위험사회의 유토피아는 부정적이고 방어적

산하며, 기존 시스템으로 관리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김철규 외(2012)는 먹거리 위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째, 먹거리 위해는 복합적 위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모든 위험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제조된 불확실성(manufactured uncertainty)을 지닌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화 속에서 나타난 초국적 농식품기업들로부터 먹거리 위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세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먹거리 위험관리는 한계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은 가중된다. 셋째, 소비자들은 먹거리의 위험에 많이 노출된 상황에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적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먹거리의 생산과정에 접근하기 어렵고, 접근한다 해도 관련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먹거리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먹거리 위해(food hazard)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PERI(Perceived Food Risk Index)에서는 먹거리 위해 요인을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정리하였다.³²⁾

〈표 5-1〉 PERI(Perceived Food Risk Index)의 먹거리 위해요인과 위험유형

관련영역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	가축 및 농장 관련	라이프스타일 관련	미생물 관련
위해요인	GMO, 첨가물, 가공식품, 방사능오염 등	광우병, 구제역, 농약, 항생제, 살충제, 성장호르몬	비만, 음주, 흡연, 기능성 식품, 과식	식중독, 살모넬라 대장균
위험유형	기술위험	환경위험	생활위험	세균위험

자료: 김철규 외,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경제와사회, 2012. 12, p. 30.

이다.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무언가 ‘좋은 것’을 갖게 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그보다 가장 최악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데 더 신경을 쓴다. (검색일 : 2019.7.22.)

32) 김철규 외,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경제와사회, 2012. 12, pp. 12~42.

세계적으로 1996년 유럽에서 발병한 광우병 사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취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는 국제적인 규정인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SPS)이나 무역기술규제장벽 협정(TBT)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도 식품위생·안전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처럼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먹거리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해요인 침투 및 식품오염 사고는 대부분 생산·가공·유통과정에서의 취급 부주의로 나타나고 있다.³³⁾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먹거리 위생·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2.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에 효율적인 약품과 항생제, 성장호르몬, 식품첨가물, 방부제 등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먹거리를 생산하고 가공·유통하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생산량과 상품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약품 등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먹거리 위험들에 소비자들은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알아도 완전히 피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나라의 식품위생·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33) 해양수산부, 「2012년도 양식장 HACCP 기반구축 연구 및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2013. 1, p. 3.

식품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식중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 78건, 2005년 109건, 2010년 271건, 2015년 330건, 2018년 363건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³⁴⁾

최근 우리나라는 ‘살충제 계란 사태’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넉넉한 사육 공간으로의 전환, 살충제 및 항생제 등 약품 관리 강화 등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친환경 농가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높았다.³⁵⁾ 수산 분야에서도 ‘다시마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섯가루가 검출되거나 중국산 꽃게에서 납 검출 사건, 양젖물에 무게를 늘린 해삼과 소라 사태,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방사능 오염 논란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먹거리 위험과 관련하여 김철규 외(2012)³⁶⁾는 한국인이 먹거리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먹거리 위험’은 사회적 위험 요인 측면에서는 6순위로 낮게 평가된 반면, 개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측면에서는 1순위로 가장 높았다. 즉, 한국인들은 ‘먹거리 위험’을 다른 사회적 위험보다 특별히 심각하게 인식하진 않지만, 개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측면에서는 ‘먹거리 위험’을 다른 위험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로 허술한 법체계와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식품관리 법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³⁷⁾ 또한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34) 식품안전나라 식중독통계 (검색일 : 2019.7.22.)

35) 네이버 사전 (검색일 : 2019.7.22.)

36) 김철규 외,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경제와사회, 2012. 12, pp. 12~42.

37) 이은숙,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자기 적합선언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학회, 2008. 10, p. 106.

(KMI, 2018)³⁸⁾에서 수산업 관련 투자 분야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가 28.5%,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27.2%, ‘수산물 유통망 개선’이 26.4%로 나타나, 국민들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산물 소비에서의 비가격적 요인(‘신선도’) 중요도 증가

먹거리 안전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수산물 소비에서는 가격 요인보다 비가격 요인(맛, 품질 등)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수산물 구입 시 고려 요소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신선도’가 32.3%로 가장 높았고, ‘원산지’가 16.2%, ‘가격’이 15.2% 등으로 나타났다.³⁹⁾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도 수산물 구입 시 고려요인은 ‘맛’ 35.9%, ‘품질’ 29.4%, ‘가격’ 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 구입 시 우선 확인 정보로는 ‘신선도’ 50.3%, ‘원산지’ 15.2%, ‘가격’ 11.2% 순으로 나타났다.⁴⁰⁾ 이는 수산물 소비에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가격 요인은 더 이상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조건’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 ‘유통 효율화’,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날로 높아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먹거리 안전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⁴¹⁾한다. 또한 Premium Dashboard⁴²⁾를 활용한

38) KMI 2019 해양수산업대회, 「2019 해양수산업 전망과 과제」, 2019. 1

39) 해양수산부,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 2018. 5, p. 2.

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2017.12

41)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㉔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㉕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㉖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㉗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의 계획

‘수산물 품질’ Keyword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수산물 품질과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 ‘자격증’, ‘신선’, ‘단속 대상’, ‘품질관리’ 등에 관심도가 높았다.

〈그림 5-1〉 ‘수산물 품질’ 관련 Keyword 분석



4. 수산물 품질관리의 한계

수산물은 쉽게 부패하고 오염원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일시 다획성(홍수출하),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경로 등의 특징으로 수산물의 품질관리는 매우 어려운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물(어류)은 외부 충격으로 비늘이 탈락되어 품질이 하락하거나, 심할 경우 손상된 부위로 부패세균이 침입해 위생·안전에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과 작간접적으로 관련됨

- 42) Premium Dashboard는 준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하는 BigO의 뉴스 데이터, 트위터 데이터와 고객이 요청한 사이트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및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임

둘째, 수산물은 생산 이후 경매 및 포장단계(양륙·경매, 선별·포장 등)와 수송 단계(운반·배열, 상·하차 등)에서 내장과 함께 상온에 쉽게 노출되는 데, 이로 인해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노출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수산물은 일시 다확성(홍수출하), 다품종·소량 생산되는 특징이 있으며,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경로⁴³⁾를 거침에 따라 품질관리의 어려움이 크다.

이처럼 부패하기 쉽고, 복잡한 유통경로를 가진 수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수산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수산업은 유통·물류 기반이 열악하여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위판장은 노후화되었으며, 가공·유통 업체들은 영세하고 종사인력의 연령도 높아 수산물의 품질관리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전국 위판장(220개) 중 64개소(33%)가 시설 연수 20년이 초과되었으며, 121개소는 냉동·냉장창고 등 수산물 위생관리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⁴⁴⁾ 수산 기업들은 연간 매출액 규모 10억 원 미만 도매업체가 70.7%, 1억 원 미만 소매업체 67.1%에 달하는 등 대부분 영세하다.⁴⁵⁾ 종사인력 또한 50대 이상이 49%를 차지(60대 이상이 22.4% 차지)하는 등 수산물 품질관리에 매우 취약하다.⁴⁶⁾

43) 수산물의 일반적인 물적 유통경로란 “생산 → 산지위판장 → (유통) → 소비지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 수요처(가공공장, 식자재 등) → (유통) → 도매상 → (유통) → 전통시장, 소매상, 급식, 군납, 수출 → 소비자”를 말함

44) 해양수산부,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 2018. 5, p. 4.

45) 상계서, p. 1.

46) 상계서, p. 5.

5. 수산분야 인력(Humanware)문제의 개선

2016년 OECD의 「수산 분야 고용 전망」에서 잡는 어업의 고용은 감소(6.1%)하지만, 양식업과 수산가공업의 고용은 증가(양식업 52.5%, 수산가공업 106.2%)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해양수산 관련 기업체 및 구직자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해양 레저관광업, 해양환경업, 해양자원개발업, 해양환경업, 해운·항만 물류업, 수산업 순으로 향후 고용 및 취업 활성화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수산업은 기업체보다 구직자가 취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⁴⁷⁾, 향후 수산업으로의 인력 유입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수산업 분야의 고용여건을 살펴보면 구직자들이 수산 분야 일자리를 기피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다. 해양수산부(2016)⁴⁸⁾는 해양수산 분야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구직자들의 근무 기피’가 30%로 가장 높았고, ‘경험자나 적임자 부족’이 26%,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이 21%, ‘회사 소재지역의 지역적 여건’이 13%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2017)⁴⁹⁾은 수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 측면, 고용의 질 제고 측면을 조사한 결과, 고용 측면에서는 기업 내 인력은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의 질 제고 측면에서는 인력이 없어 채용되는 인력은 모두 정규직이며, 임금 수준은 170~200만 원, 근무 수준은 주5일로 나타났다.⁵⁰⁾

4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동향 파악 및 고용 활성화방안 연구」, 2016., p. 107.

48) 상계서, p. 56.

49)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해양수산분야 창업활성화사업 고용영향평가」, 2017., pp. 87~92.

50) 상계서, pp. 87~92.

이처럼 수산물을 직접 만져야 한다거나, 타 산업대비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낮다거나, 노동 강도가 높다거나, 회사가 보통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출퇴근이 힘들고 근무환경이 열악해 수산업으로의 인력 유입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식도 조사에서 수산분야를 기피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도 도출되었다. 인식도 조사결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은 ‘수산분야에 취업할 의향’이 98.6%로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희망하는 일자리도 ‘수협, 협회, 법인 등’이 24.6%, ‘수산물 유통 분야(위·공판장, 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 수산물 수출입업체, 수산물 포장·유통업체 등)’가 24.6%, ‘어떤 일자리든 상관없음’이 21.7%로 나타나 수산분야로의 취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구인·구직자 간 임금수준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6.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수산물은 홍어처럼 삭히거나 젓갈로 담가서 먹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수산물은 살아있는 활 상태일 때 품질이 가장 좋다. 하지만 수산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의 투입으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수산물을 활 상태로 공급하지는 않는다. 이에 헛감용 수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산물들은 어획 후 냉장·냉동상태로 유통된다. 그러나 수산물은 부패하기 쉽고, 취급·보관 방법에 따라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특성과 우리나라가 가진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경로 때문에 품질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더욱이 소비자의 안심·안전 요구의 증대로 정부는 식품 품질에 대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국가적 인

식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확대되고 있다.⁵¹⁾

이렇게 수산물의 품질을 제고할 경우 수산물의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수산물 구매를 위한 지불의사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기능의 소비자 후생효과가 23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헌동 외(2009)⁵²⁾는 각 분야별 저온유통시스템 도입 고등어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을 분석한 결과, 어선 저온시설 부분 1,445원, 차량 저온시설 부분 1,386원, 스티로폼박스 사용 부분 1,314원, 유통 단계별 저온시설 부분 2,331원 등 저온유통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총 6,476원(할고등어 1마리당 약 15,000~20,000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정삼 외(2016)⁵³⁾는 2015년 기준 연근해어업의 생산단가를 분석한 결과, 근해어업 어획 수산물은 2,732원/kg인데 반해, 연안어업 어획 수산물은 6,409원/kg으로 134.6% 높았다. 이는 연안어업 수산물이 선도를 포함한 모든 품질이 근해어업보다 좋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권오상 외(2017)⁵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농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관련 기능의 소비자 후생효과를 추정한 결과, 안전성 검사제도는 38,127억 원, 원산지 표시제도는 175,375억 원, 친환경농산물과 GAP 인증제도는 18,501억 원으로 총 232,003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1) 한관순, 「신선물류의 선진화 과제와 발전 방안」, 물류학회지, 제28권 제4호, 2018. 8, pp. 86~87.

52) 이헌동 외, 「수산물 저온유통의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추정」, 수산경영론집, 제40권 제2호, 2009. 9, pp. 27~43.

53) 이정삼 외, 「연안어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및 연구·개발 개선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립수산과학원, 2016. 10, pp. 21~22.

54) 권오상 외, 「국가 농산물 품질관리의 소비자 후생효과 분석」, 농촌경제, 2017. 6, pp. 1~29.

제2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본 연구의 목표는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수산업 현장에서 안정적·효과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활성화 방안의 방향을 크게 일 자리 제고 측면과 제도개선 측면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1. 산지위판장 품질관리를 위한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1) 사업추진 과정

산지위판장은 정책적으로 공인된 위생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청결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취급 방식은 전 근대적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산지위판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하에서 산지위판장 위생여건 혁신사업을 수립·추진 중이다. 산지위판장 위생여건 혁신사업은 크게 두 분야로 위판장 전 과정을 위생시설화하는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사업과 수산물 위생·품질관리 제고를 위한 위판장 위생 평가 기준 마련 및 우수 위판장 선정 사업이다. 위 사업 모두 산지위판장의 수산물 위생·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산지위판장 위생여건 혁신사업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사업자의 위생관리 계획 수립·추진, 정부의 조사와 평가, 관련 정책과의 연계 등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그림 5-2〉 산지위판장 위생여건 혁신 사업추진 과정



첫째, 국가차원에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산지위판장에 배포되어야 한다.

둘째, 각 산지위판장에서는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전담인력(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배치를 통해 해당 산지위판장의 시설수준을 고려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에서는 산지위판장별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조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 모니터링 요원은 전문기관에 배치하되 응시자격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필수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결적으로 산지위판장의 수산물 위생·안전관리실태를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전문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에서는 산지위판장의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평가한 자료를 기반으로 거점형 청정 위판장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에 ‘산지위판장별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전담인력(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배치 유무’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2) 전문기관 선정

산지위판장별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이와 유사한 업무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원산지표시 단속, 수산물 인증제도 등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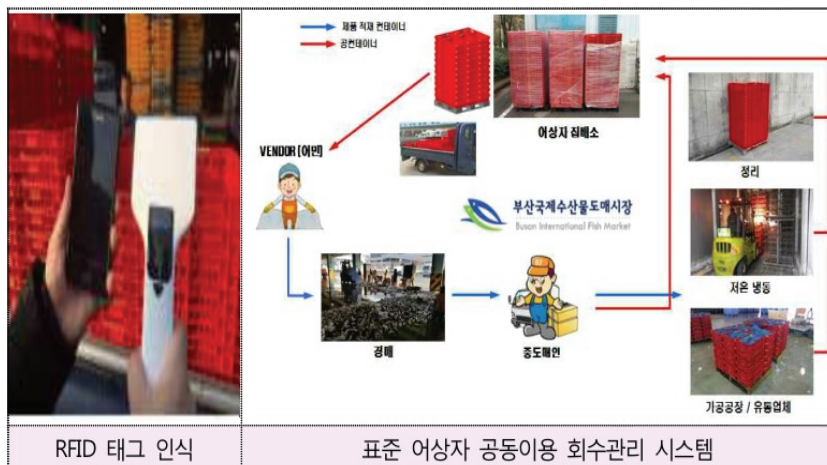
둘째, 주요 수산물 산지에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있어서 물리적·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2. 산지위판장 유통효율화를 위한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1) 수산물의 물류표준화(어상자 측면)

위판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상자는 나무의 결에 붙어있는 미생물, 폐목이나 폐건축자재로 만들어지는 등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일부 고급어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수산물들은 목상자로 유통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목상자의 단점을 보완하여 플라스틱 어상자를 개발·보급하였으나 냉동·냉장이 반복되면서 뒤틀린다거나, 이동 시 이용하는 꼬챙이가 잘 박히지 않는다거나, 미끄럽다거나, 비용적 측면의 이유로 이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새롭게 환경친화적 어상자 및 물류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5-3〉 환경 친화적 어상자 및 물류시스템



자료: 해양수산부,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 2018. 5, p. 16.

수산물의 물류표준화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새로운 어상자의 사용실태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어업인들이 새로운 어상자를 사용하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새롭게 개발·보급된 어상자들의 사용실적을 조사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 위판장 및 도매 시장에서의 표준규격 어상자 사용실적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우수기관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목상자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기존 이용자들의 관성적인 문제다. 따라서 수산물품질관리사들을 중심으로 목상자를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와 새로운 어상자의 장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어업인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

2) 수산물의 표준규격 분류

수산물 표준규격이란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⁵⁵⁾ 수산물 표준규격에서 ‘등급규격’이란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 형태, 크기, 선택, 신선도, 건조도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⁵⁶⁾ 수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은 어종별(복어, 굴비, 마른문어, 생굴, 바지락, 고막, 새우젓, 멸치젓, 냉동오징어, 간미역)로 1마리의 크기 및 혼입률(%), 선택, 선도, 향미, 숙성도, 형태, 공통규격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⁵⁷⁾ 그러나 어종별 등급규격은 ‘1마리의 크기’ 및 ‘혼입률(%)’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등급규격이 정성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주요 직무에는 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2차 시험에서는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들은 수산물의 등급규격 판별이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현장에서 수산물 등급규격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현재 등급규격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척도(정량적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이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종별·항목별 과학적인 기준 설정(정량적 기준)이 선결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과학적인 기준 설정은 정부 R&D 사업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9-6호

5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9-6호

5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별표 5] 수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제10조 관련)

둘째, 수산물에 부여된 등급규격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선 공인된 기관의 인증이어야 한다. 즉, 자신의 물건에 본인 또는 이해관계가 맞닿은 사람이 등급을 부여한다는 점은 주관적 견해가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급규격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소유와 상관없는 외부의 공인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수산물에 등급규격을 부여한다는 점은 수산물의 가격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초 수산물의 가격은 산지위판장에서 산지경매사와 중도매인 사이의 경매를 통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산지경매사는 경매시작 전 해당 수산물의 경매 시작 가격을 설정하는데, 경매 시작 가격은 상품성(어류의 크기, 신선도, 파손 수준), 동일 경매물건의 양, 전일 경매 가격, 중도매인 구매 의지, 주변위판장 시세, 조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⁵⁸⁾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주요 직무인 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업무는 이러한 산지경매사 가격 설정 업무와 서로 상충된다. 이에 따라 수산물의 등급규격을 판정하는 일은 산지경매사와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수산물품질관리사에 수산물 등급규격판정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선 전문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수산업 현장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들이 내린 등급규격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해당사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들이 수산물의 등급규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문적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산물품질관리사들이 수산물 등급규격 판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종별·항목별 과학적인 기준 설정(정량적 기준), 업

58) 장홍석 외,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12, p. 72.

무 수행체계 확립(공인기관의 지정)과 수산물품질관리사와 산지경매사의 역할 재정립 등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수산시장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전통시장에서는 수산물을 대부분 얼음의 사용도 없이 나무나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재질의 채반에 올려 진열·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냉동수산물을 해동시키는 과정에서 물기가 흥건한 바닥에 그대로 보관하거나 수산물을 밟고 던지는 행위, 도로 및 보행자 통행로, 오염된 물이 흐르는 배수구 주변에 수산물을 두는 사례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⁵⁹⁾

수산물은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선도·온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산시장에서는 수산물의 취급, 진열, 보관, 처리 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위생관리 등에 있어서 수산시장에 특화된 위생관리 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수산시장에서는 수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제값에 수산물을 구매한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현동 외(2017)는 수산시장이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소매 수산시장 가격 표시제’의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수산시장의 크기별로 1~2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⁶⁰⁾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 ‘유통 효율화’, ‘안전성 관리’ 등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산시장 현안에 해결

59) 해양수산부,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2018. 2, pp. 113~114.

60) 이현동 외,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pp. 77~79.

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산시장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를 활용하여 수산시장 여건에 맞는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위생·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신뢰향상을 위한 ‘소매 수산시장 가격 표시제’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교육 및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의 계도가 가능하다.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해양수산부 사업 중 수산시장 지원과 연관된 사업은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수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이 있다. 그러나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시설 지원에, ‘수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은 장비 지원에,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은 공모를 통한 홍보사업 지원에 국한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위 사업을 직접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부처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청의 관련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4.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전라남도는 2017년부터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수산물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물류 효율화 등을 종합 관리 할 수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채용 지원을 통해 가공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은 수산물품질관리사를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매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하는 것으로, 지원기간은 24개월까지이다. 사업지원 대상자는 수산물(천일염 등) 가공·유통업체, 어업인주식회사, 수협(지구별, 업종별), 수산물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 자격은

2018년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만 대상이 되었으나, 사업 추진 결과 사업 실적이 저조(2017년에는 5명 채용, 2018년에는 1명 채용)하였다.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자격에 수산계 고등·대학교에서 식품가공분야 졸업자(예정자)이거나 수산식품 가공업체 경력자(품질관리 분야 3년이상)를 추가하였다.

앞서 인식도 조사 결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은 ‘수산분야에 취업할 의향’이 98.6%로 매우 높았다. 또한 희망하는 일자리로 ‘수협, 협회, 법인 등’이 24.6%, ‘수산물 유통 분야(위·공판장, 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 수산물 수출입업체, 수산물 포장·유통업체 등)’가 24.6%, ‘어떤 일자리든 상관없음’이 21.7%로 나타나 수산 분야로의 유입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수산 관련 기업이 많지 않은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많지 않다. 또한 인식도 조사에서 나타난 구인·구직자 간 임금 수준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수산업 현장에 많이 채용되어 우리나라 수산업 전반에서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유통효율화를 제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확대를 위해선 인건비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임금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자격취득자들은 대부분 ‘월 280만 원’, ‘자격취득 예정자’도 중위수는 ‘월 280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 측면에서는 ‘월 240만 원’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2〉 수산물품질관리사 이해관계자 대상 임금수준 조사 결과

구분	자격취득자	자격취득 예정자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
임금 수준	• '월 280만 원' 52.1% • '월 320만 원 이상' 35.2%	• '월 280만 원' 37.1% • '월 240만 원' 25.9% • '월 320만 원 이상' 25.9%	• '월 240만 원' 37.0% • '월 200만 원' 24.1%

따라서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확대를 위해선 구인·구직자 간 임금수준의 간격(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정책추진에서 일반화되었던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인건비에 지원하는 인건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사업을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할 경우 시너지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5. 수산물품질관리사 법·제도 개선방안

1)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전문역량 강화 교육 필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응시자격의 완화(응시자격 없음)라는 측면이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수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직종에 주로 종사하며, 주요 직무는 지도 및 관리이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을 위해 2·4년제 대학에서의 교육과 1년 이상의 견습기간을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 응시자격에서는 별다른 자격조건도 없고,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교육 이수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수산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결과,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전문적인 역량의 부족이라고 나타났다.

따라서 수산물품질관리사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도 공감하였는데, 인식도 조사 결과 ‘취득 전 이수교육의 필요성’은 71.8%가, ‘취득 후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93.0%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이 자격취득 예정자 및 구인자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전문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수산물품질관리사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제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5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이다. 현재 자격시험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관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험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발급 및 관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수교육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의 성격이 자격증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일원화되어있지 못하고 복잡하다.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로 자격시험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계기관 간 관련 업무와 자료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선 결국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여 본인들의 직무를 현장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많은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직자들은 수산 관련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인식도 조사에서도 ‘수산 관련 일자리가 찾기 힘들어서’란 응답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더해 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홈페이지 개설 시 이용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는 93.0%,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는 55.2%가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는 53.7%가 이용할 것이라 응답했다.

3)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홍보 강화

제도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어느 누구나 인지하는 사항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인식도가 낮아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제도 활성화 측면에선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선부른 홍보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홍보는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방안이 구체화되고, 교육을 포함한 관리·운영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이후 체계적인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수산 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계속적으로 유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해양수산물분야 창업활성화사업 고용영향평가」, 201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김경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개선방안」, 한국청소년학회, 2008.

김인호 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한국환경교육학회, 2017. 11.

김원일,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이해」, 월간 인삼·약초, 2005. 3.

김철규 외,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경제와사회, 2012. 12.

권오상 외, 「국가 농산물 품질관리의 소비자 후생효과 분석」, 농촌경제, 2017. 6.

노병호·최수홍, 「국가기술자격법 변천에 따른 시사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2017. 12.

법제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법제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05. 11.

이은숙,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자기 적합선언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학회, 2008. 10.

이정삼 외, 「연안어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및 연구·개발 개선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립수산물과학원, 2016. 10.

이현동 외, 「수산물 저온유통의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추정」, 수산경영론집, 제40권 제2호, 2009. 9.

이현동 외,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장홍석 외,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한국해양수산개발

- 원, 2017. 12.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원가관리사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1.
-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2019 해양수산물전망대회, 2019. 1.
- 한관순, 「신선물류의 선진화 과제와 발전 방안」, 물류학회지, 제28권 제4호, 2018. 8.
- 해양수산부, 「2012년도 양식장 HACCP 기반구축 연구 및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2013. 1.
- 해양수산부,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2018. 2.
-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직무 및 시험체계 분석사업」, 2015. 3
- 해양수산부,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 2018. 5.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 분야 일자리 동향 파악 및 고용 활성화방안 연구」, 2016.
- 행정자치부, 「행정사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2002. 6.

〈인터넷 자료〉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387_38704), (검색일 : 2019.5.3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 : 2019.6.19.)
- 네이버 사전(<https://terms.naver.com/>), (검색일 : 2019.7.22.)
- 식품안전나라 식중독통계(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healthyfoodlife/foodPoisoningStat.do?menu_no=3724&menu_grp=MENU_NEW02), (검색일 : 2019.7.22.)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E%90%EA%B2%A9%EA%B8%B0%EB%B3%B8%EB%B2%95#undefined>), (검색일 : 2019.6.19.)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pqi.or.kr/int/intSysView.do>), (검색
일 : 2019.6.17.)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man001.do?gSite=Q>), (검색일 : 2019.7.1
7.)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3/2/3>), (검색일 2019.4.
15.)

부록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인식도 조사 (자 격 증 취 득 자 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활용 측면에서 자격증의 관심도, 실용성, 경쟁력, 교육의 필요성과, 수산업 일자리 측면에서의 구인 구직의 불일치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관련 이해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조사의 기재사항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기관

- ▶ 조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 ▶ 연구책임 : 광규환 연구원
- ▶ 회 신 처 : ghwang@kmi.re.kr, (T) 051-797-4555, (M) 010-7677-4975

※ 해당하는 사항에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남성 ②여성	
(2) 연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3) 학력	①고졸 이하 ②대학 재학중 ③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④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수료) 이상	
(4) 전공	①수산분야 고등학교, 대학교 등 졸업 ②비 수산분야 고등학교, 대학교 등 졸업	
(5) 근무경력	①1년 미만 ②1년이상 3년미만 ③3년이상 5년미만 ④5년이상 10년 미만 ⑤10년 이상	
(6) 현재 신분	①임금근로자 ②비임금근로자 ③재취업준비자 ④미취업자 ⑤학생 ⑥기타 *비임금근로자란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	
(6-1) 위의 '임금근로자'일 경우	①수산분야 취업 ②비 수산분야 취업	
(7) 수산물품질 관리사 자 격증 관련	취득 연도	①2015년 ②2016년 ③2017년 ④2018년
	취득 목적	①취직 ②직무수행 ③창업 ④승진 ⑤자기개발 ⑥이직(또는 전직) ⑦기타
	취득시 신분	①임금근로자 ②비임금근로자 ③재취업준비자 ④미취업자 ⑤학생 ⑥기타 *비임금근로자란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
(8) 타 자격증 보유 현황	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건) ②기타 국가자격(건) ③민간자격(건) ④자격증 없음(건) ⑤기타(건) *수산물품질관리사는 '기타 국가자격'에 해당	

I.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활용 측면

1.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관심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타인에게 권유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타인에게 권유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실용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장 근무 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업(또는 단체)에서는 취업 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필기시험 결과는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실기시험 결과는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장에서 수산물 원료 및 상품 등의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장에서 수산물 원료의 수급과 상품 판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경쟁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타 자격증 대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이 쉽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나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기업(또는 이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취득하지 않은 사람보다 급여가 더 많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취득하지 않은 사람보다 승진이 더 빠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취득하지 않은 사람보다 복리후생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향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으로 기업 고용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으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으로 기업 생산물(또는 업무)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은 소비자(고객)에게 신뢰를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교육 부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관련 교육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 전 취득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구인 구직 여건 측면

- 귀하께서 회사로부터 받고 싶은 임금 수준은 얼마입니까(사대보험, 세금 포함)?
 ① 월 180만 원 ② 월 200만 원 ③ 월 240만 원 ④ 월 280만 원 ⑤ 월 320만 원 이상
 - 귀하께서 원하는 회사의 근로 수준은?
 ① 파트타임(임시직) ② 주 5일 근무 ③ 격주 6일 근무 ④ 주 6일 근무 ⑤ 교대직(2교대, 3교대)
 - 귀하는 고용한 회사에서 품질관리(또는 유통)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도 하길 원한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때에 따라 다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귀하는 향후 수산분야로 취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있다면 4-1번, 4-2번 응답) ② 없다 (없다면 4-3번, 4-4번 응답)
- 4-1. 수산분야로 취업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주로 생각하시는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① 수산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공단, 지자체 연구소 등)
 ② 수협, 협회, 법인 등
 ③ 수산물 생산 분야(연근해어업·원양어업, 양식장 등)
 ④ 수산물 가공 분야(수산물 가공공장, 수산물 전처리공장 등)
 ⑤ 수산물 유통 분야(위·공판장, 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 수산물 수출입업체, 수산물 포장·유통업체 등)
 ⑥ 수산물 판매 분야(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홈 쇼핑 등)
 ⑦ 어떤 일자리든 상관없음
 ⑧ 기타(직접 기재 :)
- 4-2. 귀하가 현재 취업을 위해 생각하시는 기업 규모는 무엇입니까?
 ① 소상공인 업체(10인 미만) ② 소기업(50인 미만) 이상 ③ 중기업(300인 미만) 이상
 ④ 중견기업 이상 ⑤ 대기업 이상
- 4-3. 수산분야로 취업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수산업 관련 일자리를 기피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노동 강도가 높아서 ② 업무가 위험하다 생각해서
 ③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낮아서 ④ 업무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⑤ 근무지가 주로 외곽에 있어서(근무지가 멀어서) ⑥ 일자리의 발전가능성(또는 지속가능성)이 없어서
 ⑦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해서 ⑧ 부모님, 지인 등이 반대해서
 ⑨ 자기개발이 어려워 ⑩ 취업(또는 퇴직) 후 이직이 어려워
 ⑪ 기타(직접 기재 :)
- 4-4. 귀하가 수산분야 일자리를 기피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산분야로 취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귀하가 구직을 위해 주로 이용하시는 방법(경로)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잡코리아, 알바전국 등 사이트를 이용해서 ②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③ 베품시장 등 지역정보지를 이용해서 ④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⑤ 정부, 지자체 등 관공서를 통해서 ⑥ 주변 회사 또는 지인을 통해서
 ⑦ 채용박람회, 리쿠르팅 등 공개채용 자리를 통해서
6. 귀하가 선택하신 구직 방법(경로)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어려워서 ② 일자리를 찾고 구하기가 용이해서
 ③ 이용이 쉽고 간편해서 ④ 수산 관련 일자리 정보가 많아서
 ⑤ 수산 관련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서
7. 귀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또는 수산업 전반)에 특화된 구직 사이트가 개설된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② 잘 이용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이용하지 않는다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인식도 조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분야 국제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활용 측면에서 자격증의 관심도, 실용성, 경쟁력, 교육의 필요성과, 수산업 일자리 측면에서의 구인 구직의 불일치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관련 이해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조사의 기재사항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기관	▶ 조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 연구책임 : 황규환 연구원 ▶ 회 신 처 : ghhwang@kmi.re.kr, (T) 051-797-4555, (M) 010-7677-4975
----------	---

※ 해당하는 사항에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남성 ②여성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현재 신분	① 임금근로자 ② 비임금근로자 ③ 재취업준비자 ④ 미취업자 ⑤ 학생 ⑥ 기타 *비임금근로자란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
(4) 학력	① 고졸 이하 ② 대학 재학중 ③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④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수료) 이상
(5) 전공	① 수산분야 고등학교, 대학교 등 재학(또는 졸업) ② 비 수산분야 고등학교, 대학교 등 재학(또는 졸업)
(6) 향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취득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취직 ② 직무수행 ③ 창업 ④ 승진 ⑤ 자기개발 ⑥ 이직(또는 전직) ⑦ 기타
(7) 타 자격증 보유 현황	①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건) ② 기타 국가자격(건) ③ 민간자격(건) ④ 자격증 없음(건) ⑤ 기타(건) *수산물품질관리사는 '기타 국가자격'에 해당

I.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활용 측면

1.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관심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시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꼭 취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타인에게 권유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타인에게 권유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실용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장 근무 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업(또는 단체)에서는 취업 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필기시험 응급은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실기시험 응급은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경쟁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타 자격증 대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이 쉽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나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또는 이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취득하지 않은 사람보다 급여가 더 많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취득하지 않은 사람보다 승진이 더 빠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취득하지 않은 사람보다 복리후생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향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으로 기업 고용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으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으로 기업 생산품(또는 업무)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은 소비자(고객)에게 신뢰를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교육 부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관련 교육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 전 취득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구인 구직 여건 측면

1. 귀하께서 회사로부터 받고 싶은 임금 수준은 얼마입니까(사대보험, 시금 포함)?
 ① 월 180만 원 ② 월 200만 원 ③ 월 240만 원 ④ 월 280만 원 ⑤ 월 320만 원 이상
2. 귀하께서 원하는 회사의 근로 수준은 ?
 ① 파트타임(임시직) ② 주 5일 근무 ③ 격주 6일 근무 ④ 주 6일 근무 ⑤ 고대직(2교대, 3교대)
3. 귀하는 고용한 회사에서 품질관리(또는 유통)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도 하길 원한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때에 따라 다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귀하는 향후 수산분야로 취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있다면 4-1번, 4-2번 응답) ② 없다 (없다면 4-3번, 4-4번 응답)
- 4-1. 수산분야로 취업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주로 생각하시는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① 수산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공단, 지자체 연구소 등)
 ② 수협, 협회, 법인 등
 ③ 수산물 생산 분야(연근해어업·원양어업, 양식장 등)
 ④ 수산물 가공 분야(수산물 가공공장, 수산물 전처리공장 등)
 ⑤ 수산물 유통 분야(위·공판장, 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 수산물 수출입업체, 수산물 포장·유통업체 등)
 ⑥ 수산물 판매 분야(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홈 쇼핑 등)
 ⑦ 어떤 일자리든 상관없음
 ⑧ 기타(직접 기재 :)
- 4-2. 귀하가 현재 취업을 위해 생각하시는 기업 규모는 무엇입니까?
 ① 소상공인 업체(10인 미만) ② 소기업(50인 미만) ③ 중기업(300인 미만) 이상
 ④ 중견기업 이상 ⑤ 대기업 이상
- 4-3. 수산분야로 취업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수산업 관련 일자리를 기피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노동 강도가 높아서 ② 업무가 위험하다 생각해서
 ③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낮아서 ④ 업무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⑤ 근무지가 주로 외곽에 있어서(근무지가 멀어서) ⑥ 일자리의 발전가능성(또는 지속가능성)이 없어서
 ⑦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해서 ⑧ 부모님, 지인 등이 반대해서
 ⑨ 자기개발이 어려워 ⑩ 취업(또는 퇴직) 후 이직이 어려워
 ⑪ 기타(직접 기재 :)
- 4-4. 귀하가 수산분야 일자리를 기피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산분야로 취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귀하가 구직을 위해 주로 이용하시는 방법(경로)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잡코리아, 알바천국 등 사이트를 이용해서 ②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③ 벼룩시장 등 지역정보지를 이용해서 ④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⑤ 정부, 지자체 등 공공서를 통해서 ⑥ 주변 회사 또는 지인을 통해서
 ⑦ 채용박람회, 리쿠르팅 등 공개채용 자리를 통해서
6. 귀하가 선택하신 구직 방법(경로)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어려워서 ② 일자리를 찾고 구하기가 용이해서
 ③ 이용이 쉽고 간편해서 ④ 수산 관련 일자리 정보가 많아서
 ⑤ 수산 관련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서
7. 귀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또는 수산업 전반)에 특화된 구직 사이트가 개설된다면 이용하실겠습니까?
 ①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② 잘 이용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이용하지 않는다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인식도 조사

(구인자용 : 기업, 협회, 단체 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활용 측면에서 자격증의 관심도, 실용성, 경쟁력, 교육의 필요성과, 수산업 일자리 측면에서의 구인·구직의 불일치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관련 이해관계자 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조사의 기재사항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기관	▶ 조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안로 301번길 26) ▶ 연구책임 : 황규환 연구원 ▶ 회 신 처 : ghhwang@kmi.re.kr, (T) 051-797-4555, (M) 010-7677-4975
----------	---

(1) 귀사의 설립연도는?	(
----------------	---

I.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활용 측면

1.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관심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시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구직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에서는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흐름화 관련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실용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장 근무 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필기시험 종목은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실기시험 종목은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경쟁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에서는 인력 채용 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취득하지 않은 사람보다 급여가 더 많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취득하지 않은 사람보다 승진이 더 빠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취득하지 않은 사람보다 복리후생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향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으로 기업 고용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으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으로 기업 생산품 또는 업무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은 소비자(고객)에게 신뢰를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교육 부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관련 교육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 전 취득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구인 구직 여건 측면

1. 채용하는 직원에게 귀사가 지불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은 얼마입니까(4대보험, 세금 포함)?	
① 월 180만 원 ② 월 200만 원 ③ 월 240만 원 ④ 월 280만 원 ⑤ 월 320만 원 이상	
2. 귀사가 원하는 직원의 근로 수준은 무엇입니까?	
① 파트타임(임시직) ② 주 5일 근무 ③ 격주 6일 근무 ④ 주 6일 근무 ⑤ 교대직(2교대, 3교대)	
3. 귀사는 품질관리(또는 유통) 업무로 고용한 직원에게 회사의 다른 업무가 있다면 시킬 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때에 따라 다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1. 귀사에서 품질관리(또는 유통) 업무로 고용한 직원에게 다른 업무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품질관리(또는 유통) 업무 비중이 작아서 ② 품질관리(또는 유통) 업무가 중요하지 않아서 ③ 다른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 ④ 다른 업무가 더 중요해서 ⑤ 예전부터 다 했기 때문에 ⑥ 기타(직접기재 :)	
4. 귀하는 취업예정자가 수산업 관련 일자리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노동 강도가 높아서 ② 업무가 위험하다 생각해서 ③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낮아서 ④ 업무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⑤ 근무지가 주로 외곽에 있어서(근무지가 멀어서) ⑥ 일자리의 발전가능성(또는 지속가능성)이 없어서 ⑦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해서 ⑧ 부모님, 지인 등이 반대해서 ⑨ 자기개발이 어려워져서 ⑩ 취업(또는 퇴직) 후 이직이 어려워져서 ⑪ 기타(직접기재 :)	
5.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을 희망하는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인력소개 지원 ② 세금지원 ③ 상시 인건비 보조 ④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의 인건비 보조 ⑤ 고용 인력의 기숙사(숙박시설) 지원 ⑥ 직업훈련교육 지원 ⑦ 기타(직접기재 :)	
6. 귀사가 인력 채용을 위해 주로 이용하시는 방법(경로)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잡코리아, 알바전국 등 사이트를 이용해서 ②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③ 베토키장 등 지역정보지를 이용해서 ④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⑤ 정부, 지자체 등 공공서를 통해서 ⑥ 주변 회사 또는 지인을 통해서 ⑦ 채용박람회, 리쿠르팅 등 공개채용 자리를 통해서	
7. 귀사가 선택하신 구직 방법(경로)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어려워서 ② 일자리를 찾고 구하기가 용이해서 ③ 이용이 쉽고 간편해서 ④ 수산 관련 일자리 정보가 많아서 ⑤ 수산 관련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서	
8. 귀사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또는 수산업 전반)에 특화된 구직 사이트가 개설된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② 잘 이용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이용하지 않는다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기타 의견	※ 미지택으로 하고 싶은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해양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최지현
02	수산부문 전망모형「KMI-FOSiM」구축 연구(2차년도)	이현동
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박상우
04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최석우
05	연안토지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통한 연안관리 효과 제고방안	윤성순
06	선박 배출저감기술의 국내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안용성
07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최일선
08	주요국의 해양유전자원 관리체계 강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09	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장원근
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이정삼
11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연구	류정곤
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명화
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영향분석 연구	한광석
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김태일
15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전형진
16	해상 사이버 보안 대책방안 연구	박한선
17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기업 역량강화방안 연구	윤희성
18	국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산항 및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하태영
19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이기열
20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수준 분석과 물류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은수
21	온도조절 컨테이너의 국제물류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신수용
2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3/3)	박한선
23	환경해권 경제개발 및 협력방안 연구(3/5)	최나영환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	------------------------------	-----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 연구(1/2)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양식어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해양사고조사체계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연구 - 베이지안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병욱
12	해운기업 지배구조 및 비즈니스 유형과 경영성과 관계 분석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이기열
18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차년도) -	박한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일본의 수산물 수입 구조 분석과 對일본 수출 전략 연구	임경희
----	--------------------------------	-----

2018년

01	선화주조선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3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안용성

04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조지성
05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6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류정곤
07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방안	엄선희
08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최일선
02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이남수
03	해수욕장의 사회악자 포용성 증진 방안	정지호

2018년

01	미얀마 국립수산업대학 설립 추진 방안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 인증을 중심으로 -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 위한 우리나라-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7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홍장원
28	어촌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박상우
29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	이종필
30	IMO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비한 국내 해운산업 대응 전략	이호춘
31	외래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 방제체계 개선방안	최나영환
32	수산물 생산·유통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가능성과 도입방안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딥러닝 기반의 건축물선 시황예측 연구	윤희성
02	차고스 제도 권고적 의견 사건이 독도 문제에 주는 시사점 검토	최지현
03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주요 정책 변화 및 우리나라 기업 활용방안 연구 : 해운·물류분야를 중심으로	김형근
04	국제해상여객 수요분석을 통한 여객항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주요항국제카펠리운항현황을중심으로-	이경한

05	도미니카(공) 수산물클러스터 조성 사업 타당성 분석	마창모
06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EEU의 수산물 소비 특성 및 수출 전략(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김지연
08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Ⅰ) -디지털물류공급사슬추진로드맵중심으로-	최상희
09	북극 해상운송 규범 동향 및 대응방안	김지혜
10	해운-조선산업 관계분석 연구(SD를 활용한 발주량 예측)	최건우
11	지역 해양수산 혁신성장체계 구축 연구	최지연
12	강원도 어촌마을 신활력 제고방안 연구(2/2차년도) -강원도 어촌마을 유형별 사업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실행방안 연구-	이상규
13	해양수산 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장정인
14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연안도시계획 수립 방향	정지호
15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백은영
16	베트남·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 분석 및 대응 방안	임경희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성과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트렌드 분석 및 수출 전략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브릿지 구축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인 쇄 | 2019년 8월 29일 인쇄

발 행 | 2019년 8월 30일 발행

발 행 인 | 양 창 호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주)디자인월드 051-916-1533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6,000원